

韓國古代史學會

제200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13:30~18:00
-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학술회의실2(B103호)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경북대학교 사학과
- 후원 : 대한문화유산연구원, 휴먼앤북스(Human&Books)

한국고대사학회 제200회 정기발표회 일정표

13:30 ~ 13:50	개회사: 여호규(한국고대사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 위가야 (부산대학교)
13:50 ~ 14:20	■ 제1주제 학회 초창기의 학술활동(1987.02-1997.02) -고대국가 형성에서 각국의 발달사로- - 발표: 이영호(경북대학교)	사회: 위가야 (부산대학교)
14:20 ~ 14:50	■ 제2주제 디지털 전환기 고대사 연구의 다층화와 확장(1997~2010) - 발표: 박대재(고려대학교)	
14:20 ~ 15:20	■ 제3주제 2011~2025년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 발표: 홍승우(경북대학교)	
15:20 ~ 15:40	휴식	
15:40 ~ 17:40	■ 종합토론 토론: 이문기(경북대학교), 이수훈(부산대학교),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정재운(공주대학교), 주보돈(경북대학교)	좌장: 노중국 (계명대학교)

목차

[제1주제] 학회 초창기의 학술활동(1987.02-1997.02)

-고대국가 형성에서 각국의 발달사로-

발표 : 이영호(경북대) 1

[제2주제] 디지털 전환기 고대사 연구의 다층화와 확장(1997~2010)

발표 : 박대재(고려대) 31

[제3주제] 2011~2025년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발표 : 홍승우(경북대) 별지

학회 초창기의 학술활동

-고대국가 형성에서 각국의 발달사로(1987.2-1997.2)-

이영호(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 I. 머리말
- II. 한국고대사연구회 창립
- III. 정기발표회 개최와 회보의 간행
- IV. 학술대회 기획과 『한국고대사연구』 간행
- V. 금석문·사료에 대한 관심과 정리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고대사학회의 처음 이름은 한국고대사연구회였다. 이는 1987년 2월 14일(토) 대구 대명동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에서 창립되었다. 그 후 학회의 활동상은 실로 눈부실 정도여서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대표하는 기관의 위치에 있음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학회는 창립 직후부터 여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결과물을 간행하였다. 학술대회만 하더라도 정기발표회, 합동토론회, 그리고 특별한 경우 부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뒤에는 하계세미나까지 추가되었다. 간행물로는 『한국고대연구회 회보』를 발행하였고, 학회지로서 『한국고대사연구』를 꾸준히 간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기획한 자료집과 여러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최근에는 유사 역사학자들의 준동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강연회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연륜을 더함에 따라 몇 차례 그간의 활동상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행사가 있었다.

먼저 창립 20주년을 맞아 초대 회장을 지낸 노중국 교수가 「한국고대사학회 2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¹⁾ 2007년 2월 8-9일에 열린 제20회 합동토론회 기조강연이었고, 학회의 창립과정과 추구한 목표, 그간의 반성과 과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설명과 제안이 있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서는 제30회 합동

1) 노중국, 2007 「한국고대사학회 2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46.

토론회 둘째 날인 2017년 2월 17일에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을 말한다」 좌담회가 열렸다.²⁾ 이강래 회장의 사회로 학회 고문인 역대 회장들이 모여 지난날을 회고하고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대 합동토론회, 역대 하계세미나, 『한국고대사연구』에 수록된 논문 목록을 정리하고, 부록에 논문 게재 인명 색인을 실은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의 발자취』 책자를 간행하였다.³⁾ 이러한 행사들은 그간의 학술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진전을 위한 노력의 일단이었다.

학회 학술활동의 핵심은 발표회와 토론이다. 그런데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기발표회가 오늘로써 제200회를 맞이하였다. 1987년 2월의 학회 창립으로부터 39년만이고, 2007년 12월의 제100회 정기발표회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학회에서는 이를 경축하는 뜻에서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다. 아니다 다를까 필자에게 학회 초창기의 학술활동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김수태 회장 시절 총무이사로서 정기발표회 100회를 분석한 적이 있다.⁴⁾ 여러 학술행사 중 정기발표회만을 가려 살핀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면서도 외연을 넓혀 학회 초창기의 학술활동 전반을 검토하겠다. 시기는 ‘한국고대사학회’로 이름을 바꾸기 전인 ‘한국고대사연구회’ 시절(1987.2-1997.2) 10년간을 대상으로 하겠다.⁵⁾

II. 한국고대사연구회 창립

주지하듯이 우리 학회는 1987년 2월 14일에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2139번지,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서문화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탄생하였다.⁶⁾ 현재의 주소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번지다. 당시 학회의 이름은 한국고대사연구회였고, 창립

-
- 2) 한국고대사학회, 2017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을 말한다(좌담회)」 『韓國古代史研究』 87,
 3) 한국고대사학회, 2017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의 발자취』, pp.113.
 4) 이영호, 2007.12.8 「한국고대사연구, 그 도전과 응전 -정기발표회 100회의 분석(1987-2007)-」, 제100회 정기발표회 ; 2007.12 『한국고대사연구』 48.
 5) 1997년 2월 14일 충남대학교 본부 강당에서 제10회 합동토론회 후에 열린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학회명을 ‘韓國古代史研究會’에서 ‘韓國古代史學會’로 변경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이 기간에는 노중국(1987.2-1991.2), 노태돈(1991.3-1993.2), 양기석(1993.3-1995.2), 김영하(1995.3-1997.2) 교수께서 학회를 이끄셨고, 회장이란 이름 대신 대표간사라 불렸다. 그래서 이 글은 학회에서 요청한 1995년경까지가 아닌 1997년 2월까지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학회 명칭과 임원 호칭의 변화, 종신회원제 도입, 홈페이지 개설, 학보 발간 회수의 증가, 학보의 학회지 체제로의 복귀, 하계세미나 개최, 정기발표회 6회 실시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6) 학회 창립 경과에 대해서는 1987.6.30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제1호에 실린 「1. 창립과정」 및 1988.7 『한국고대사연구』 제1집에 실린 「창립경과」가 있다. 이와 함께 후술할 노중국, 주보돈 두 분의 글도 참고 된다.

총회에는 젊은 한국고대사 연구자들이 많이 모였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학회가 창립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특정 시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창립된 것도 국내에서는 처음이었다.

대구에서 한국고대사연구회가 창립된 것은 뒤에 목요윤독회라고 불린, 대구 지역 젊은 교수들의 공부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남대 사학과에서 정년퇴임하고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대우교수로 계시던 洪淳裨 선생을 모시고 1984년부터 일본서기를 강독하면서, 구성원들 간에 학회 창설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학회가 창립된 데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대학진학이 겹치면서 대학진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대학진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입학 정원은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한편, 신학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여러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새로 대학을 설립하여 전국의 대학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거기에도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5공 정부가 국사 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면서 한국사 분야의 교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마다 한국사 전공 교수들이 늘게 되었고, 대구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무렵 대구 지역 한국고대사 전공 교수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경북대에는 서울대에서 신라사로 석사 학위를 한 이기동 교수가 1976년 5월에 사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였다. 대구 지역 첫 한국고대사 전공 교수였다. 1977.5.월에는 경북대 사학과 출신의 문경현 교수가 경상대 교양학부에서 사학과 조교수로 전입하였다. 1977.3에는 서울대 출신의 노태돈 교수가 계명대 사학과 전임강사로, 서강대 출신의 이종욱 교수가 영남대 국사학과 전임강사로 각각 부임하였다. 그러나 이기동 교수는 1983년 2월에 동국대 사학과로 전출하였다. 노태돈 교수는 1981년 6월에 사직하고 서울대 국사학과로 옮겼으며, 이종욱 교수 또한 1985년 8월 모교 사학과로 전출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연을 따라 서울로 자리를 옮겼고, 학계의 중진 학자로서 크게 활동하였다.

대학이 팽창하고 역사학 연구가 붐을 이루면서 좋은 연구자들이 대구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79.9월에 노중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백제사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모교인 계명대 사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고, 1982.3에는 고려대를 졸업한 최광식 교수가 효성여대 국사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였다. 대구대에서는 계명대를 졸업한 이명식 교수가 1982년 3월에 대구대 역사전공 조교수에 부임하였다. 1983.5월에는 주보돈 교수가 모교인 경북대 사학과 전임강사로 발령받았으며, 1986.3월에는 이형우 교수가 모교인 영남대 국사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였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이들은 모두 석사 학위만을 가졌고, 대학 강사 또는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하다가 4년제 대학

한국고대사 전공 교수가 되었다. 40대 초반인 이명식 교수를 제외하면 이들은 30세 정도의 나이에 대학 전임이 되었고, 출신 대학은 달랐지만 젊은 학자들로서 연구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大丘史學會 정기발표회 정도여서 기껏 일 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중 노중국 교수가 함께 모여 공부하자고 제의하자 의기투합, 모두 찬성하였다.

1984년 4월경 계명대 노중국 교수, 대구대 이명식 교수, 영남대 이종욱 교수, 경북대 후보돈 교수, 효성여대 최광식 교수 등 다섯 명이 모여 우선 일본서기를 함께 윤독할 것과 모임의 명칭이나 읽는 방법, 모임의 횟수나 시기, 모임에 참가할 전공자의 범위, 이를 이끌어갈 좌장 선임 등을 논의하였다.⁷⁾ 매주 목요일 저녁 일곱 시에 모임을 가지며,⁸⁾ 장소는 잠정적으로 이명식 교수 연구실로 하였다. 참가자의 범위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교수 중 일본고대사, 신화학, 민속학, 한·일고전문학 및 어학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그래서 5월 초 이명식 교수 연구실에서 홍순창 선생과 발기인 5명, 일본고대사를 전공한 효성여대 李貞姬 교수, 한·일의 신화·전설을 전공하는 金화경⁹⁾ 교수 등 8명이 모여 윤독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교재는 岩波書店 간행의 日本古典文學大系本(上·下)으로 하고, 일본서기에 보이는 인명 및 지명은 일본어로 읽기로 하였다. 아직 이 책이 국내에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을 하기로 하며, 전체 30권을 한 사람이 1권씩 담당하기로 하였다. 일본서기 주석은 일본 학자들이 단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 관계 기사조차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으므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주석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서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 후 참여 시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고대 언어를 전공하는 효성여대 金東昭 교수, 일본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효성여대 이영란 교수, 한국고대사를 전공하는 영남대 李炯佑 교수, 고고학을 전공하는 李희준¹⁰⁾ 교수가 참가하였다. 강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1985년 말경에는 상권을 다 마치고, 다시 1년여의 기간 만에 하권도 마칠 수 있었다. 회원들 모두 학기 중의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한다.

7) 목요윤독회의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많이 참고하였다. 朱甫暎, 1986.12 「韓國古代史에의 迂廻의 접근 -일본서기 輪讀會-(學術行事報告)」 『대우재단소식』 18, pp.32-35.

8) 9시까지 대략 두 시간씩 공부하였다고 한다.

9) 윗글에서는 金모교수라고 하였으나, 김화경 교수로 확인되었다.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몇 달 뒤부터 개인사정으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10) 윗글에서는 李모교수라고 하였으나, 이희준 교수로 확인되었다.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뒤에 개인사정으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일본고대사에 대한 知見이 부족한 탓에 일본서기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일본의 지명이나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 까다로운 대목들도 많았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답사를 많이 다녔다. 그러던 중 1984년 12월 경 대구대학 초청으로 광개토왕릉비문에 대한 강연 차 대구에 온 일본 東北大學 井上秀雄 교수의 도움으로 1985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고대한일관계사 및 일본고대사의 중심 유적지를 탐방하였다.¹¹⁾ 金海를 출발하여 福岡을 비롯한 北九州 일대, 奈良 大阪 京都 등 일본 서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大和 지방과 東京, 仙台 지역 등 일본 전역을 한여름의 무더위를 참아가며 답사하였다. 이 여행으로 일본의 지리·지형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일본 속의 한국고대사 흔적을 확인하여 일본서기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대우재단에 신청하여 매월 10만원의 보조를 받게 되어 모임의 경비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본서기에 기록된 국내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첫 답사지로 선정된 곳은 阿羅加耶의 중심지인 경남 함안 지방이었다. 그 후 일본서기를 읽는 것과 병행해서 창녕, 합천, 고령 등지를 답사하였다. 일본서기 완독을 통해서 적절하고도 철저한 사료비판을 거치면 한국고대사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모임이 거듭되고 점차 기존의 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성을 반성하게 되면서 학회 설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던 중 1986년 8월에 노중국 교수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백제정치사연구 -국가형성과 지배세력의 변천을 중심으로-」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 문학박사가 매우 귀하던 시절, 이는 백제사 분야 최초의 문학박사 학위였다. 이후 목요윤독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회 창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1986년 11월에 한국고대사 전공자들만의 학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에게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해 12월과 이듬해 1월, 2일에 걸쳐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후 학회의 성격, 명칭, 회칙, 회원의 범위, 운영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창립발기인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의 연구자들로 구성하기로 하여, 김상현(동국대 경주캠퍼스) 김태식(울산대) 노중국(계명대) 이명식(대구대) 이형우(영남대) 임세권(안동대) 조인성(경남대) 주보돈(경북대) 최광식(효성여대) 한규철(경성대) 교수 등 10명이 참여하였다.¹²⁾

11) 흥순창 선생을 단장으로 모시고, 이정희, 노중국, 주보돈, 최광식 교수가 동행하였다. 旗田巍 선생을 비롯하여 田村圓澄(九州歷史資料館 관장), 井上秀雄(東北大), 武田幸男(東京大), 木村誠, 田中俊明, 李成市, 辛澄惠, 鄭早苗, 浜中昇, 三池賢一 등 일본고대사 및 한국고대사를 전공하는 주요 연구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12) 이상의 창립과정은 한국고대사연구회, 1987.6.30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1에 실린 「1. 학회 창립과정」 및 1988.7 『韓國古代史研究』 1 말미에 실린 「창립경과」 참고.

드디어 1987년 2월 14일 16시, 창립총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20여 명의 젊은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식순은 제1부와 2부로 나뉘었다. 1부는 창립총회로 개회선언, 창립선언문 낭독, 경과보고(발기인 대표), 회칙 검토 및 통과, 임원선출, 제 2부는 사업계획 토의 및 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대 임원으로 대표간사 계명대 노중국 교수, 총무간사 경북대 주보돈 교수, 연구간사 효성여대 최광식 교수, 편집간사 영남대 이형우 교수를 선출하였다. 또한 학회의 주요업무를 결정하는 평의원으로 창립발기인 10인과 김수태(충남대)·김영하(홍익대)·신경철(부산산업대)·양기석(충북대)·이문기(대구한의대 부임 예정)·이희준(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를 선출하였다.¹³⁾ 끝으로 계명대 정문 앞의 대로변에 있는 경양식점 마이홈(My Home)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식사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국고대사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한국고대사연구회가 표방한 내용은 발기취지문에서 살필 수 있다.¹⁴⁾ 해방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전공자들도 많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연구자 사이의 학적 교류는 전무한 상태로, 이의 미비는 폭넓은 의견 교환의 부재를 가져왔으며, 또 고대사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도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그래서 한국고대사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학술토론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절실히 필요하나, 지금 학계의 실정으로는 그러한 장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심화를 통해 고대사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폭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학회 창립의 목적이 있음을 밝혔던 것이다. 이들의 주장과 학회 창립은 당시 학계 상황에서 매우 파격적인 주장과 행동이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구상을 발표하였다.

본회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연구가 부진한 분야의 공동연구, 특정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기획 연구 발표, 기본사료의 공동독회, 유적지 답사, 동·하계 워크숍 개최, 인접학문단체 및 외국에 있는 한국고대사 연구 단체와의 폭넓은 교류 그리고 회원 상호간이나 해외 연구단체와의 자료 교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고대사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3) 노중국, 2007 「한국고대사학회 2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46, p.265-267.

14) 이하는 『한국고대사연구』 1, 발기취지문 참조.

또한 학회가 영남 지역을 근거지로 만들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회는 우선 경남·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명실상부한 한국고대사연구회 발족의 초석이 됨에 불과하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일한 성격의 모임이 타지역에서도 확산되어 전국 규모의 학회가 하루 속히 발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고대사연구회는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영남지역 연구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임이 확산되어 전국 규모의 학회가 하루 속히 발족되기를 기대하였다. 더욱이 이름을 ‘학회’가 아닌 ‘연구회’라 하였다. 이는 겸사일수 있지만, 학회 창립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제1호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학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사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한국고대사상을 재구성한다. 기왕의 연구에 의해 형성된 고정된 인식이나 시각을 벗어나 한국고대사와 관련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여타 전공자들과 함께 재검토한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에 빚어진 역사인식의 한계를 극복한다. 현재의 학회 활동이 개인의 개별연구를 중심으로 타성에 젖어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비판을 회피하거나 인맥, 학맥에 얽혀 학적 교류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활발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역사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연구자 사이의 학적 교류를 넓힌다.

셋째, 기존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역사연구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다. 학문외적인 관심을 가진 일부 논자들이 학문 활동에 간여하여 역사학의 학문적 순수성과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현재적 관심을 도외시하는 학문의 순수성 주장을 배격함과 동시에 정치력과 결탁하거나 학문외적인 목적성이 개재된 사회분위기도 배격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를 학회의 3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회의 운영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¹⁵⁾

첫째, 기획발표를 시도해서 적어도 1년 후에 발표될 논제를 미리 공지한다. 연구자 상호간의 학적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해 2·3명의 지정 토론자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도록 한다. 발표자는 이를 수렴하고 정리하여 학회지에 발표한다.

15)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1(1987.6.30.).

둘째, 연간 1회 발간 예정인 학회지 외에 정기적으로 1년 4회의 회보를 발간한다. 정기발표회의 논문, 그에 대한 종합토론의 요점 정리나 근간 연구서의 서평, 주요 논문의 논문평 및 국내외 학계의 쟁점, 새로운 연구경향과 자료의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갖춘 회보가 되도록 한다.

셋째, 정기적인 공동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전공자 상호간의 인간적 관계를 다져가고 또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시정하거나 이견의 폭을 좁힌다.

넷째, 고대사 연구는 역사현장과 유리될 수가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유적지를 답사하며, 금석문 자료를 함께 탁본하고 공동으로 판독하여 자료 부족의 제약성을 극복한다. 끝으로, 학회가 영남지역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발하였으나 이는 지역적 편협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루 빨리 전국적 규모의 고대사 연구학회가 발족되기를 바란다. 그때 우리는 이 학회기 그 속에 발전적으로 흡수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등이었다.

주요 내용은 1편의 논문에 대해 2,3명의 지정 토론자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년마다 학회지 외에 회보를 4회 발간하며, 공동토론회를 통해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발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유적지를 답사하고 금석문에 관심을 기울여 사료부족을 극복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창립 후 약 40년이 흐른 지금도 그 방법론은 여전히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전국적 규모의 고대사 학회가 발족되기를 바란 것은 앞의 창립 발기문과 같다.

Ⅲ. 정기발표회 개최와 회보의 간행

학회 창립 후 첫 행사는 정기발표회 개최였다. 『한국고대사연구 회보』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고대사연구회 시절 정기발표회는 줄곧 1년에 4번 열렸다. 분기별 1회로 대략 4,6,9,12월에 발표회가 있었다.

제1회 정기발표회는 1987년 4월 4일(토) 15시,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발표주제는 「統一期新羅의 百濟故地支配」였고, 발표자는 노중국(계명대 사학과), 지정토론자는 김태식(울산대 사학과)·주보돈(경북대 사학과), 사회자는 최광식(효성여대 사학과) 교수였다. 대표간사가 첫 발표자로 나섰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모두 창립발기인이었다.

제2회 정기발표회는 1987.7.4. 15시에 열렸고 주제는 「新羅 中古期の 郡司와 村司-村落構造의 一斷面-」으로, 발표자는 후보돈(경북대 사학과) 교수였다. 제3회 발표회는 1987.9.26. 열렸고, 주제는 「伊西國考 -初期新羅의 西南方進出과 관련하여-」였다. 발표자는 이형우(영남대 국사학과) 교수였다. 제4회 발표회는 1987.12.26. 열렸고, 주제는 「新羅統一期の 軍事組織」이었다. 발표자는 이명식(대구대 역사교육과) 교수였다. 첫째 정기발표회 발표자는 창립 발기인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였고, 사회는 연구간사 최광식 교수가 맡았다. 그 대신 토론자는 대구지역을 벗어나 전국에서 위촉하였다. 개최 장소는 대구대, 계명대, 경북대 등 대구시내 각 대학을 순회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정기발표회부터는 발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최장소가 대구를 벗어나기도 해서 타 지역에서도 열렸다. 이는 현재까지 학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발표는 적어도 1년 후에 발표될 논제를 미리 정하겠다고 한 학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다음해인 1988년도 주제를 미리 고대국가 형성 문제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공동주제를 “한국고대국가 형성에 관한 제문제”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6개 주제를 제시하였다.¹⁶⁾

1988년도 6주제 기획

- 제1주제: 한국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1988년 2월 워크숍 주제)
- 제2주제: 한국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1988년 2월 워크숍 주제)
- 제3주제: 신라의 국가형성에 관한 문제(1988년 3월 정기발표회 주제)
- 제4주제: 백제의 국가형성에 관한 문제(1988년 6월 정기발표회 주제)
- 제5주제: 고구려의 국가형성에 관한 문제(1988년 9월 정기발표회 주제)
- 제6주제: 가야의 국가형성에 관한 문제(1988년 12월 정기발표회 주제)

공동주제를 고대국가형성으로 설정한 것은 당시 학계의 여러 형편을 감안한 듯하다. 고대국가의 용어나 국가형성 단계설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신빙성 문제나 고고학적 자료의 활용문제가 학계의 쟁점으로 대두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고대사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계획은 예정대로 실천되어 제1주제와 제2주제의 2개 발표를 “韓國古代國家 形成에 관한 諸問題”라는 공동주제로 설정, 제1회 합동토론회에서 최광식, 후보돈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후 주제부터는 정기발표회 분기별 발표로 진행했다. 곧 제3주제는 5회 정기발표회: 신라 상고기의 통치조직과 국가형성문제(이문기) 제4주제는 6회 정기발표회: 백제의 기원과 국가 형성에 관한 재검토(이도학) 제5주제는 7회 정기발표회:

16) 한국고대사연구 회보 1(1987.6.30)

고구려의 국가형성-초기 왕위계승의 검토와 함께-(김기흥)¹⁷⁾ 제6주제는 8회 정기발표회에서 가야의 사회발전 단계(김태식)이 발표하였다.¹⁸⁾ 1988년도까지 정기발표회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완결되었다. 이들 발표회의 결과물은 뒤에 노중국의 「서론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의 제문제와 관련하여-」을 붙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1990.6, 민음사, 대우학술총서)으로 간행되었다.

정기발표회는 1989년도부터 정기발표회는 평의원회의 결의로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하여¹⁹⁾ 자유주제로 전환했다. 김영하의 「5·6세기 新羅國家의 發達 -중앙정치체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4.29)은 그 첫 발표였다. 이에 따라 한국고대국가의 발달에 대해서는 제2회 합동토론회로 넘어갔다.

한국고대사연구회 창립 후 처음 몇 년간은 정기발표회에서 1편을 발표한 경우가 많았다. 1992년까지 6년간의 24회 가운데 절반 남짓한 13회가 발표자 1명이었다. 그것도 초기가 더욱 그러했다.²⁰⁾ 토론자로는 처음 1편의 발표에 2명의 지정토론자를 배정하였다. 이는 대략 1993년 10월의 제27회 정기발표회(1993.10.23.) 때까지 계속되었다.²¹⁾ 그러나 점차 발표자가 증가하면서 1명으로 굳어졌다. 처음에 지정토론자가 2명이어서 한 편의 발표·토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거기다가 지정토론자와 주요 참석 예정자에게는 발표문을 미리 배포하여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발표장도 좌석을 큰 사각형으로 배치하여 서로 둘러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토론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지정토론자 밖의 참석자에게도 거의 모두 의무적으로 한 마디씩 질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한 편의 발표 및 토론에 엄청난 시간이 할애되었다. 3,4 시간씩 걸리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²²⁾

학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토론문화였다. 학회의 생명은 이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재의 학회 활동이 개인의 개별연구를 중심으로 타성에 젖어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비판을 회피하거나 인맥, 학맥에 얽혀 학적 교류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활발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천명했던 것이다. 정기발표회의 토론문화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연구자들이 이를 꺼려해 발표자를 잘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

17) 이근우·이근무의 공동발표가 있어 두 편이 발표되었다.

18) 김동윤의 발표가 있어 두 편이 발표되었다.

19)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11(1989.5.31).

20) 제1회~6회, 제9회~12회, 제14회, 제16회, 제24회(1992년 12월 12일) 등이었다.

21) 제1회~제7회, 제9회~제12회, 제14회, 제16회, 제23회, 제24회. 제27회로 모두 16회였다. 중간에 빠진 곳은 2편이 발표된 경우이다. 그러나 제7회, 제27회처럼 2편을 발표하면서 토론자가 2명씩인 예도 있었다.

22) 이영호, 2007.12 「한국고대사연구, 그 도전과 응전 -정기발표회 100회의 분석(1987-2007)-」, 『韓國古代史研究』 48, pp.382-383 참조.

학회에서는 이 같은 정기발표회의 내용과 분위기를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회보의 발행이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1987년 6월 30일, 드디어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제1호가 창간되었다. 1면 서두에 실린 「발간사」에서는 발간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략)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창립된 한국고대사연구회에서는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외에 학회의 활동을 회원 여러분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또 회원 상호간의 학적인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보를 간행하기로 하였다.

본 회보에는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요지와 질의토론 요지가 소개되며 동.학계 합동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과 학술답사 보고 등이 실리게 된다. 그리고 주요 논문에 대한 논문평과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 등이 소개되고 학계의 새로운 연구경향과 새로운 자료소개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 역사학계에서 회보의 출간은 본학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회보의 발간이 보다 알차고 충실하게 이루어져 학회의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곧 학회의 활동을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또 회원 상호간의 학적인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회보를 간행하며, 발표 토론 요지와 합동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과 학술답사 보고 등이 수록 될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학회의 발표 내용과 질의·토론 요지가 회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었다. 발간사 아래의 목차는 1. 학회의 창립과정 2. 학회의 목표 3. 학회의 운영방침 4. 제1회 정기발표회 발표논문 요지 5. 제1회 정기발표회 질의·토론 요지 6. 한국고대사연구회 회칙 7. 공지사항이고, 발행인은 노종국, 연락처는 경북대 인문대 사학과 후보돈 교수 연구실이었다.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는 제35호(1994.8.30. 발행)까지 간행되었다. 대략 정기발표회보다1달 늦도록 해서 분기별로 4회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1988년 4월 4일 열린 제1회 정기발표회 내용부터 1994년 4월 23일 열린 제29회 정기발표회까지의 발표요지, 질의·토론 요지가 수록되었다.²³⁾ 한국고대사연구 1집을 제외하고 2집부터 11집까지 학회지에 회보가 실리지 않음으로써 학회소식(공지사항)은 전적으로 회보 몫이었다. 17년간이나 계속된 정기발표회 발표 요지 및 토론 요지, 학회소식 등은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회보 발행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정보 전달도 멈추고 말았다.²⁴⁾

23) 단 제28회 정기발표회 자료는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해 실지 못했다고 한다. 회보 제33호(1994.1.31.) p.15.

1996년 말까지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답사기 포함 70편이었다, 이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⁵⁾

<표 1> 정기발표회 발표주제 분류

구분	고고학	고조선	낙랑/삼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삼국)	삼국일반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고대일반	사료/사학사	답사/자료/기타	계
1987~88				1	1	1	4	1	2						10
1989~90	1			2	2		4						1		10
1991~92		1	2	3	1	1	2	1	2	1	3				17
1993~94		1		1	1	2	5	1	3	1			1		16
1995~96			1	5	2		3		3				2	1	17
누계	1	2	3	12	7	4	18	3	10	2	3		4	1	70

처음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로 발표주제가 한정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신라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기획발표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차 고고학, 고조선, 삼한, 발해, 사료, 답사기 등으로 확대 되었다. 이는 1989년도 발표회부터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주제가 자유로웠던 데도 있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이 확대된 데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연구자의 범위가 영남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²⁶⁾

IV. 학술대회 기획과 『한국고대사연구』 간행

한국고대사학회 학술대회는 정기발표회 밖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와 특별한 경우 열리는 부정기적인 학술대회가 있다. 이 가운데 합동토론회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이틀간 개최되어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의 장이었다. 또 부정기적인 특별 학술대회도 후원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정기발표회에 비해 이들 학술대회는 모두 기획 학술대회로 학회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사였다.

24) 한국고대사학회로 이름을 바꾼 직후인 1997년 5월에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발표문과 토론문을 다시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홈페이지가 개설될 때까지 약 3년간은 정기발표회 상황은 물론 관련 자료가 실리지 못했다.

25) 이영호, 2007, 12 「한국고대사연구, 그 도전과 응전 -정기발표회 100회의 분석(1987-2007)-」, 『韓國古代史研究』 48, p.371의 <표 1>의 일부임.

26) 위의 논문. p.372

합동토론회는 창립 이듬해인 1988년 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10년간 매년 1회씩 모두 10회가 개최되었다. 제1회 합동토론회 주제는 「韓國 古代國家 形成에 관한 諸問題」였다. 이는 1988.2.6.(토)-7(일) 열렸고, 장소는 대구 파크호텔이었다. 제1부 주제는 고대국가 형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로 발표자는 최광식(효성여대), 토론자는 이희준(동국대) 양기석(충북대), 사회는 김태식(울산대) 교수였다. 제2부 주제는 고대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로 발표자는 주보돈(경북대), 토론자는 한규철(경성대) 임세권(안동대), 사회는 조인성(경남대) 교수였다. 오후와 저녁식사 후로 나누어 첫날 2편을 발표하고 다음날은 유적답사로 계획하였다. 개별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을 뿐 종합토론은 하지 않았다.

제1차 합동토론회 직후인 1988년 4월에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신라 비석이 발견되었다. 뒤에 울진봉평리신라비라 명명된 이 비석은 완형의 비석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고, 당시까지 발견된 비석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랜 법흥왕 11년(524)임이 밝혀져 학계를 긴장시켰다. 그래서 서둘러 개최한 것이 「蔚珍 鳳坪 新羅碑(假稱)의 綜合的 檢討」 대규모 학술대회였다. 1988.7.22.(금)-23(토) 계명대 동서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대우재단에서 후원하였다. 8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가하였는데, 제목과 발표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蔚珍地方의 歷史·地理的 環境(대구대 이명식)

蔚珍 鳳坪 新羅碑에 대한 語學的 考察(단국대 남풍현)

蔚珍 鳳坪 新羅碑에 대한 金石學的 考察(안동대 임세권)

蔚珍 鳳坪 新羅碑의 釋文과 構造(효성여대 최광식)

蔚珍 鳳坪 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경북대 주보돈)

蔚珍 鳳坪 新羅碑와 中古期의 六部問題(대구한의대 이문기)

蔚珍 鳳坪 新羅碑와 官等制 成立(서울대 노태돈)

蔚珍 鳳坪 新羅碑를 통해본 地方統治體制(서울시립대 이우태)

한국고대사를 전공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짧은 시간에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자는 김정배(고려대), 서재극(계명대), 정구복(정문연), 문경현(경북대), 신형식(이화여대), 이기동(동국대), 이종욱(서강대) 교수 등으로, 전국 최고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여러 논쟁점 가운데 비의 성격을 둘러싸고 巡行碑 설과 律令碑 설이 대립하였다. 노중국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임으로써 한국고대사연구회는 일약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추적인 학회가 되고 말았다.

제2회 합동토론회 주제는 「韓國 古代國家 發達에 관한 諸問題」였다. 이는 1989. 2.17.(금)-18(토) 열렸고, 장소는 충남대 도서관 세미나실이었다. 제1부 제1주제는 「신라 중고기 불교의 사회적 의의 -불교의 업설과 신라 골품제 사회-」로 발표자는 김상현(동국대), 토론자는 신종원(강원대) 최병현(서울대), 사회는 채상식(부산대) 교수였다. 제2주제는 「6,7세기 일본에 있어서 율령수용의 과정과 의미」로 발표자는 이정희(효성여대), 토론자는 김용선(한림대) 김은숙(서울대), 사회자는 채상식(부산대) 교수였다. 제2부는 종합토론으로 좌장은 노중국 교수였다. 1부는 오후에, 2부는 저녁식사 후 진행하였으며, 다음날 오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1차 합동토론회가 이론적 검토였다면 2차 합동토론회는 구체적 발달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합동토론회가 끝난 뒤인 1989년 4월에는 영일군(현 포항시) 신광면 냉수리에서 울진봉평리신라비보다 더 오래된 완형의 비석이 발견되어 또 학계를 흥분시켰다. 연대가 지증왕 4년(503)²⁷⁾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학회에서는 또다시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라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다. 발표 제목과 발표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정문연 정구복)

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語文學的 考察(영남대 김영만)

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建立年代와 目的(대구여상 김창호)

迎日 冷水里 新羅碑에 보이는 5-6세기의 經濟問題(한신대 안병우)

迎日 冷水里 新羅碑에 보이는 部의 性格과 政治運營問題(경북대 문경현)

迎日 冷水里 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부산대 선석열)

타 기관에서 먼저 학술대회를 열었지만, 사실상의 의미 있는 학술대회는 그해 7월 6일(목)~7일(금) 계명대 동서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고대사연구회 학술대회였다. 이번에도 대우재단에서 후원하였고, 주요 연구자들이 짧은 시간에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자는 임세권(안동대), 남풍현(단국대), 이기동(동국대), 권병탁(영남대), 노태돈(서울대), 이현혜(한림대) 교수 등으로, 전국의 명망 있는 연구자들이었다. 지정토론에 이어 노중국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열렸다.²⁸⁾ 비석의 건립시기에 503년 설과 443년 설이 대립되었고, 분쟁의 재상이 된 財(物)의 성격을 둘러싸고 收租權 설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었다.

27) 일부에서는 눌지마립간 27년(443년)으로 보기도 한다.

28) 이영호,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參觀記」 참조, 회보 12호(1989.7.3 1.)

봉평리비와 냉수리비 두 비석 모두 발견된 지 3달 만에 우리 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고대사연구회는 학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심 학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1년 3월부터 권역 지역이사를 신설하고 서울대 노태돈 교수가 대표간사에 취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학회가 되었다.

1990년도부터는 합동토론회 주제를 한국고대사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선정하였다. 제3회 합동토론회 주제는 7세기 한국사의 제문제였다. 1990.2.9.(금)-10(토) 열렸고, 장소는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중회의실이었다. 1,2회가 2편의 논문만 발표되었다면, 3회는 6편이 발표되고, 종합토론 좌장은 이기동 교수였다.

제4회 주제는 8-9세기의 신라와 발해였다. 1991.1.30.(수)-31(목)에 열렸고 장소는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중회의실이었다,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종합토론 좌장은 신형식 교수였다. 당시 학술대회 독특한 풍경은 저녁식사 후에도 발표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개 오후와 저녁식사 후 둘로 나누어 발표·토론하고 다음날 종합토론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오후, 저녁식사 후,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발표·토론하고 오후에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저녁식사 후에도 밤늦도록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은 1회부터 4회까지였는데,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엿볼 수 있다.

이하 5-10회까지의 합동토론회 주제 등은 다음과 같다.

- 제5회: 新羅末 高麗初의 社會變動 /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중회의실,
1992.2.14.(금)-15(토) 5편 발표, 종합토론 좌장 김광수(서울대)
- 제6회: 한국사의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 호암교수회관(서울대후문 낙성대 부근),
1993.2.17.(수)-18(목) 6편 발표, 종합토론 좌장 노태돈(서울대)
- 제7회: 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서울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8층),
1994.2.3.(목)-4(금) 5편 발표, 종합토론 좌장 이기동(동국대)
- 제8회: 삼한의 사회와 문화/ 대구박물관 강당,
1995.2.14.(수)-15(목) 6편, 종합토론 좌장 이현혜(한림대)
- 제9회: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 성균관대 종합강의동 2층 시청각세미나실,
1996.2.8.(목)-9(금) 6편, 종합토론 좌장 노태돈(서울대)
- 제10회: 韓國 古代의 人間과 生活/ 충남대학교 본부 강당,
1997.2.13.(목)-14(금) 5편, 종합토론 좌장 김영하(성균관대)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의 중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종합토론이 없었던 1회를 제외하면, 좌장 9명의 분담 회수는 이기동 2회, 노태돈 2회, 신형식 1회, 이현혜 1회, 김광수 1회, 노중국 1회, 김영하 1회였다. 개최지는 10곳은 대구 4회, 충남대 2회, 서울대 1회, 성균관대 1회, 대우재단 1회, 호암박물관 1회였고, 대구 4회 중 3회가 계명

대에서 열렸다.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에 질의 토론·요지 또는 종합토론이 실렸다.²⁹⁾ 일부 참관기도 찾을 수 있다.³⁰⁾

기획발표와 기타 논문을 모아 학회지 『한국고대사연구』가 발간되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고대사연구 1』(1988.7)
- 『한국고대사연구 2-蔚珍鳳坪新羅碑 特輯號-』(1989.5)
- 『한국고대사연구 3-迎日冷水里新羅碑 特輯號-』(1990.8)
- 『한국고대사연구 4-韓國古代國家의 發達 特輯號-』(1991.1)
- 『한국고대사연구 5-七世紀 韓國史의 諸問題 特輯號-』(1992.1)
- 『한국고대사연구 6 -8.9세기의 新羅와 渤海 (特輯號)-』(1993.4)
-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 한국고대사연구 7』(1994.4)
- 『古代와 中世 韓國史의 時代區分 : 한국고대사연구 8』(1995.2)
- 『古朝鮮과 夫餘의 諸問題 : 한국고대사연구 9』(1996.11)
- 『三韓의 社會와 文化 ; 한국고대사연구 10』(1995.7)
-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 한국고대사연구 11』(1997.2)

제1집에 실린 발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본 학회는 창립이후 기존의 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반성하면서 수준 높은 학술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劃研究發表를 계획하여 그 동안 4회의 정기발표회와 1회의 合同討論會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歷史現場의 공동답사, 金石文의 공동조사 등 共同研究와 討論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처럼 계획하였던 학술발표와 토론이 所期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 연구성과들을 하나로 묶을 學會誌의 발간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본 학회는 《韓國古代史研究》라는 題名의 學會誌 발간을 추진하여 이제 創刊號를 내놓게 되었다.

29) 제5, 10, 15, 20, 25, 34호는 각각 제1회(1988), 제2회(1989), 제3회(1990), 제4회(1991), 제5회(1992), 제7회(1994) 합동토론회 질의·토론 요지를 싣고 있다. 제30호에는 제6회 합동토론회(1993) 질의·토론 요지 대신 「제6회 합동토론회 소묘」가 실렸다. 한편, 합동토론회 개별발표의 토론요지 내지 종합토론은 일부 누락은 있지만 『한국고대사연구』에도 실렸다. 곧 제3회(5, 1992), 제4회(6, 1993), 제5회(7, 1994), 제7회(9, 1996), 제9회(11, 1997), 제10회(12, 1997)가 그것이다.

30) 梁起錫, 第1回 韓國古代史研究會 合同討論會 參觀記, 회보 5호
서영대, (제3회)한국고대사연구회의 합동토론회를 보고나서, 회보 15호.
안병우, (제3회) 합동토론회 참관기, 회보 15호
김주성, (제4회) 합동토론회 참관기, 회보 20호.
김주성, 제6회 합동토론회 소묘, 회보 30호.

제1집 창간호는 특집 없이 신라편, 가야편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정기발표회 논문을, 후자에는 일반 논문을 실었다. 그러나 이후에 간행된 10권은 모두 특집호로 제작되었다. 2집은 蔚珍鳳坪新羅碑, 3집은 迎日冷水里新羅碑 특별 학술대회 결과를 모은 것으로, 개별 논문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실렸다. 제4집부터는 합동토론회 논문과 정기발표회 논문을 합쳐 간행하였다. 1집부터 6집까지는 매년 1권씩 발간하였으나 간기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산업사 金京熙 사장의 후원 덕분이었다.

학회지 발간이 新書苑(사장 任星烈)으로 넘어가면서 7집부터는 칼라 표지에다 합동토론회 주제가 서명이 되었다. “한국고대사연구”란 이름은 표지 맨 위에 작은 글씨로만 표기되었다. 이는 출판사에서 서점 판매를 위한 조치였다. 학회에서 출판비를 부담할 수 없어 나타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 시기 간기 또한 고르지 않았는데, 9집은 간기와는 달리 11집, 12집보다 늦게 출판되기도 하였다. 학회지 표지는 12집부터 서경문화사에서 간행하면서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 그러나 한국고대사연구회는 여전히 엮은이 또는 편저자였을 뿐, 펴낸이 또는 발행자는 출판사 사장이었다. 학회장 이름으로 학회지를 발행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다. 이 무렵에는 책이 한권씩 간행될 때마다 작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³¹⁾ 학회 구성원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V. 금석문·사료에 대한 관심과 정리

한국고대사 연구는 역사현장과 유리될 수 없다. 학회 창립 후 ‘학외의 운영방침’에서 밝혔듯이, 정기적으로 유적지를 답사하고, 관련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금석문 자료를 공동 판독하여 사료 부족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초기부터 현장조사를 중시하고 금석문의 재판독에 힘을 기울였다.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를 바탕으로 금석문 공동판독회 활동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회 大邱戊戌塢作碑, 1987.8.13(목), 경북대학교 박물관

제2회 永川菁堤碑, 1987.11.15(일), 경북 영천시 도남동

31) 회보와 정기발표회 안내문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3집(제15회 정기발표회 후), 제5집(제5회 합동토론회 후 『韓國古代史資料集』과 함께 함), 제6집(제25회 정기발표회 후), 제7집(제29회 정기발표회 후) 등이다. 1집 간행 후에도 김경희 사장이 참석한 출판기념회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또한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도 제14회 정기발표회를 마친 뒤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 제3회 關門城 城壁石刻, 1987.12.13.(일), 경북 월성군 모화면
- 제4회 南山新城碑, 1988.2.29.(월)³²⁾, 국립경주박물관
- 제5회 蔚州 川前里 書石, 1988.6.5.(일) 경남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 제6회 永川 菁堤碑 丙辰銘, 1988.8.13.(토) 경북 영천시 도남동

학회를 창립한 뒤 여름방학 기간부터 회수를 붙여 금석문 공동판독회를 열었다. 경북 대박물관 소장 대구무술오작비부터 시작하여 永川 菁堤碑 丙辰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로 보아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참석자는 임원을 포함 대략 5-6명 전후였다. 그 결과는 조사보고 형태로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필자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공동판독을 돌아가며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大邱戊戌塢作碑의 調査와 判讀」(1987.9, 회보 2호)
- 「永川菁堤碑貞元銘(의 조사와 판독)」(1987.11, 회보 3호)
- 「南山新城碑 第1碑의 조사와 판독」(1988.3, 회보 5호)
- 「南山新城碑 第2碑의 調査와 判讀」(1990.12, 18호)
- 「남산산성비 제4비의 조사와 판독」(1991.1, 19호)
- 「蔚州 川前里書石 原銘의 조사와 판독」(1988.5, 6호)
- 「永川 菁堤碑 丙辰銘의 調査와 判讀」(1988.8.13. 13호)

위에서 보듯이 1회 조사보고는 회보 2호에, 2회 조사보고는 3회에, 4회는 5회에, 5회는 6호에 순차적으로 실렸다. 그러나 3회의 關門城 城壁石刻 조사보고는 회보에 빠졌다. 5회의 남산신성비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6기를 조사했으나 그 가운데 제1비의 조사보고가 나왔다. 뒤에 보완작업을 거쳐 제2비조사보고가 나왔고, 그 후 다시 제4비에 대한 조사보고가 나왔다. 제6회 永川 菁堤碑 丙辰銘은 1988.8.13.(토) 공동조사 후 조사보고가 나오지 못하고, 1988.10월, 1989.3월과 11월의 3차례 공동판독회를 더한 결과 조사보고가 나왔다. 그러나 1988년 4월에 울진봉평리신라비가, 8월에는 명활산성작성비가, 그 이듬해에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연달아 발견되면서 기존의 비석보다는 새 비석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 (특별조사) 울진 봉평 신라비(가칭)의 현장답사 및 판독, 1988.4.16(토)
- (특별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울진봉평신라비 모형 조사, 1988.9.3(토)
- (특별조사) 명활산성비와 출토현장 조사, 국립경주박물관·명활산성, 1988.9.10(토)

32) 『한국고대사연구』 1집에서 1월 29일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특별조사) 울진봉평신라비 공동조사, 1988.11.19.(토)

(특별조사) 영일 냉수리신라비 현지조사와 공동판독, 1989.4.14(금) 등 2회, 경북
영일군 신광면 냉수 2리

(특별조사) 영일 냉수리 신라비(가칭) 현지조사와 공동판독, 1989.6.3.(토)

(특별조사) 영일 냉수리신라비”(가칭) 촬영 및 정밀조사, 1989.11.18.

울진 봉평리신라비는 1988년 4월 15일 대구의 매일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날인 4.16(토) 현지 1차답사와 판독회, 4.23(토) 정기발표회 후 공동판독회, 5.5(목) 2차답사와 판독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한국고대사연구 제2집 특집호호 간행하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후 1988.9.3(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울진봉평신라비 모형 조사가 있었고, 11.19.(토) 울진봉평리신라비를 다시 공동조사하였다. 8.27일 경주에서 명활산성비가 발견되었으므로 9.10(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비석을 조사하고 출토현장을 답사하였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 또한 1989년 4월 13일자 대구의 매일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이튿날인 4.14(금) 냉수리신라비 현지조사와 공동판독회가 있었다. 결과는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조사와 판독」으로 회보 10호(1989.4.30)에 실렸다. 이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그에 앞선 6.3.(토) 현지 조사와 공동판독회가 있었다. 이는 학술대회 발표 예정자와 임원들이 비석을 살펴보고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학술대회 후인 11.18에도 포항중성리신라비 조사가 있었다. 이는 한국고대사연구 제3집에 게재할 비석 사진 촬영 및 정밀조사 때문이었다.

울진봉평리신라비와 포항중성리신라비에 대한 학술대회가 끝나면서 다시 기존의 금석문에 대한 재조사가 이어졌다. 1990.6.18.(토)-19(일) 이틀간 울주 천전리 서석 명문에 대한 공동판독회가 있었다. 「蔚州 川前里書石 癸巳銘의 判讀과 紹介」(1992.1.31., 24호)와 「川前里書石 乙丑銘의 判讀과 紹介」(1992.3.31., 25호)는 그 조사보고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1991.4.21.에는 창녕 진흥왕순수비 조사 및 공동판독회가 있었다, 조사보고는 노중국 교수의 「昌寧 眞興王巡狩碑의 調査와 判讀」(1991.3.31. 20호)였다. 시기적으로 회보 간행 뒤에 조사한 셈이지만, 이는 회보가 간기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이다.³³⁾

금석문에 대한 관심은 현장조사와 공동판독에만 머물지 않았다. 새로 발견된 금석문자료, 국내 사료에 보이는 금석문, 중국 출토 묘지명이나 중국 문헌자료에 보이는 사료, 고대 금석문으로 잘못 알려진 금석문을 조사하고 조선 후기의 것임을 밝힌 것. 그리고 심지어 고려의 이슬람교도 라마단의 묘비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33) 메모를 확인한 결과 필자가 이를 수령한 것은 5월 25일이었다.

- 「합천 저포리 출토 토기명문 안내」(회보 9호, 1989.1.31)
- 朱甫暉,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環頭大刀의 銘文」(회보 16호, 1890.5.31)
- 노중국,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新羅時代의 金石文」(회보 14호, 1990.1.31.)
- 李文基, 「百濟 黑齒常之 墓誌銘의 判讀과 紹介」(회보 21호)
- 李文基, 「百濟 黑齒俊 墓誌銘의 判讀과 紹介」(회보 22호)
- 김정숙, 「高句麗 銘文入金銅板의 紹介」(회보 23호)
- 김정숙, 「계사명아미타삼존사면석상의 판독 순서에 대한 일고」(회보 26호)
- 이문기, 「石刻 金可紀傳의 紹介」(회보 27호)
- 최광식, 「고려의 이슬라교도 라마단의 묘비」(회보 28호)
- 서영대, (금석문 자료소개) 「王基墓誌」(회보 30호)
- 김상현, (금석문 자료소개) 「陝川 埋岸里碑」(회보 31호)
- 이문기, (금석문 자료소개) 「高麗史에 보이는 新羅軍制 관련 銅印」(회보 32호)
- 朴方龍, (금석문 자료소개) 「南山新城碑 第9碑 發見 略報」(회보 33호)
- 권덕영, (금석문 자료소개) 「唐 代宗의 新羅王 및 王太妃 冊文 2件」(회보 33호)
- 최광식, (금석문 자료소개) 「최근 발견된 蔚珍 昭光里 黃腸封界 標石 답사기」(회보 34호)
- 하일식, 「773년銘 창녕 관룡사 불상 좌대 자료 소개」(제40회 정기발표회, 동아대학교, 1996.12.7)

먼저 「합천 저포리 출토 토기명문 안내」는 부산대박물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에서 下部 관련 부분을 추려 소개한 것이고,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環頭大刀의 銘文」은 『MUSEUM』 467호(1990.2월호)에 실린 논문 「朝鮮半島 出土의 有銘環頭大刀」을 소개하고 가야사 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기원하였다. 흑지상지 부자 묘지명에 대한 소개는 중국 탁본자료집에 주목하면서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이고,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등 문헌자료에서 발견된 금석문도 소개하였다. 또한 陝川 埋岸里碑, 南山新城碑 第9碑는 신출토 금석문에 대한 소개였다. 이런저런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회보 제30호부터는 아예 ‘금석문 자료소개’ 코너를 만들어 각종 금석문을 판독하고 소개하였다. 또한 창녕 관룡사 불상 좌대 자료가 제40회 정기발표회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금석문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당시 한국고대사연구회 회원들의 특징 중 하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료에 대한 정리로는 『韓國古代史資料集』(지식산업사, 1992.2.15.)의 간행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고대사 개설서를 집필하기 전단계로서, 또 대학 강독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인세수입을 통해 학회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었다.³⁴⁾

그렇다 하더라도 합동토론회 기획발표의 시기구분을 준거로 삼아 고대사회의 형성과 국가 출현, 삼국의 발전, 7세기의 정치사회변동, 통일신라와 발해, 후삼국의 성립과 사회변동의 5장으로 나누고, 각 장을 내용별로 정치적 발전, 통치조직, 경제와 사회구조, 사상과 문화, 대외관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료들은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로 나누고, 국외 자료는 중국자료 밖에 일본서기 등 일본 측 자료도 활용함을 강조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문헌자료와 고문서자료, 금석문자료로 나누어 배열, 정리하였다. 말미에는 국내 및 국외 주요 사료에 대한 해제를 붙였다. 한국사 전체가 아닌 한국고대사만의 자료집으로, 주요 사료를 잘 망라하고 있어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한다.

VI. 맺음말

한국고대사연구회 창립은 한국 역사학계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였다. 기존 학계의 개인 중심의 연구와 타성에 젖은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학회를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비판을 회피하거나 인맥, 학맥에 얽혀 학적 교류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활발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제창했던 것이다. 대구 지역 젊은 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고대사연구회는 우리나라 시대사 학회의 효시였고 그 뒤 중세사, 조선시대사 등 각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학회가 타나났다. 1980년대 대학이 급팽창하던 시기, 어느 지역엔든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교수로 부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대구 지역에서는 이들이 한국고대사를 공부하기 위해 뭉쳤고, 또한 이를 이끌어갈 리더가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 정기발표회나 특별 학술대회 발표·토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회보를 간행한 것 또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정기발표회 개최 장소도 창립지인 대구를 벗어나 전국을 순회함으로써 한국고대사 붐을 일으켰다. 또한 대표간사도 대구를 떠나 충청, 서울에서도 맡았다. 이처럼 한국

34) 자료해제 작성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한국고대사자료집 원고 청탁서) 참조. 한편, 당시 학회의 어려운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나 중국, 일본의 도서를 복사해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당시 집행부나 회원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 파악되는 것은 박문원 외, 《역사사전》, 伊豆公夫, 《新版 日本史學史》, 校倉書房, 1972, 朝鮮史研究會會報(60호-79호), 共同體と國家の歴史理論(靑木書店), 국가의 기원(法政大出版部), 好太王碑(東方書店), 朝鮮史研究會會報(1-59호), 原典共產主義大系 上·下(極東問題研究所, 1985), 好太王碑考(水谷悌二郎, 1972) 등이다. 1차, 2차, 4차 정기발표회 안내문 및 1차 금석문 공동판독회 안내문 참조.

고대사연구회는 대구에서 출발하였지만 지방학회도 아니고 중앙학회도 아니다. 지방학회인 동시에 중앙학회이고, 전국학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고대사연구회 탄생의 학술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하겠다.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고대사 분야도 신라, 백제, 고구려와 발해, 가야 등 국명이나 상고, 고대 등의 이름을 붙인 여러 분과 학회가 나타났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간행하는 동급 학회인 것이다. 어느 학회지에 논문이 실리건 피디에프 파일은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대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회와 이들 학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아마 고대사 관련 종합 학회로서 큰집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정기발표회 200회를 맞이한 지금, 39년 전 학회를 창립하고 이끌던 주역들은 모두 현직을 떠났다. 그 후 다시 10년 전후한 세월이 흘렀다. 나아가 팽창하던 대학도 축소기에 접어든지 오래다. 연구자 수는 줄고, 지방은 동공화되며, 중앙 집중화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격하게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면서 AI가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학회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한국고대사연구회, 1987.4~1994.8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1호~35호,
한국고대사연구회, 1988.7 『韓國古代史研究』 1,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연구회, 1989.5 『韓國古代史研究 -蔚珍鳳坪新羅碑 特輯號-』 2,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0.8 『韓國古代史研究 -迎日 冷水里新羅碑 特輯號-』 3,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1.1 『韓國古代史研究 -韓國古代國家의 發達 特輯號-』 4,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2.1 『韓國古代史研究 -七世紀 韓國史의 諸問題 特輯號-』 5,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3.4 『韓國古代史研究 -8·9세기의 新羅와 渤海-』 6,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4.4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韓國古代史研究』 7),
新書苑.

-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2 『(古代와 中世) 韓國史의 時代區分』(『韓國古代史研究』 8),
新書苑.
- 한국고대사연구회, 1996.11 『古朝鮮과 夫餘의 諸問題』(『韓國古代史研究』 9), 新書苑.
-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7 『三韓의 社會와 文化』(『韓國古代史研究』 10), 新書苑.
- 한국고대사연구회, 1997.2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韓國古代史研究』 11),
新書苑.
- 한국고대사학회, 1997.10 『韓國古代史研究 -韓國古代의 人間과 生活-』 12,
서경문화사.
- 한국고대사학회, 2017.2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의 발자취』.
- 노중국, 2007.6 「한국고대사학회 2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46.
- 이영호, 2007.12 「한국고대사연구, 그 도전과 응전 -정기발표회 100회의 분석(1987-
2007)-」, 『韓國古代史研究』 48.
- 이강래 외, 2017.9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을 말한다(좌담회)」 『韓國古代史研究』 87.
- 朱甫暉, 1986.12 「韓國古代史에의 迂迴的 접근 -일본서기 輪讀會-(學術行事報告)」
『대우재단소식』 18.

[부록]

I. 학회 창립 관련 자료

1. 학회 창립과정

한국 고대사 전공자들만의 모임을 가질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84년부터였으나 그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86년 11월이다. 당시 대구 시내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몇몇 연구자들이 모임을 갖고 고대사 전공자들만의 학회기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하면서부터였다. 그 자리에서 학회조직에 대한 제반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비록 구체성을 띠지는 못했지만 회를 창립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적되기도 하고 참가자의 범위나 회칙의 문제까지 검토되었다. 회를 창립하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선에서 일단 모임을 마무리하고 참석자의 범위를 넓혀 뒷날 새로운 모임을 갖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구 이외의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연락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응락하여 학회 창립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후 86년 12월과 87년 1월, 2월에 걸쳐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학회의 성격이나 명칭문제, 회칙의 작성 문제, 회원의 범위 그리고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학회의 윤곽이 잡혀 갔다. 학회 창립의 윤곽이 잡힌 이후 창립일자는 87년 2월 14일로 결정되었으며, 장소는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로 정하였다. 창립총회 때는 참가자의 범위를 영남 일원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고대사 전공자로서 희망하는 자는 모두 망라하기로 하고 연락하였다. 창립총회 당일에는 비록 20여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모인 사람이 모두 고대사 전공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이로서 한국 고대사 연구회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2. 학회의 목표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학계에는 많은 학회가 경향각지에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학회활동을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첫째, 고대사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한국고대사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에 의해 형성된 고정된 인식이나 시각을 벗어나 한국 고대사와 관련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여타 전공자들이 함께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왕의 고대사 연구가 정치사, 제도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연구 경행을 반성하고 사회경제사 분야에까지 인식의 폭을 확대하여 한국고대사회의 구성사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구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에 빚어진 역사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분단시대의 사회상황 속에서 학문외적인 조건은 우리의 역사인식체계에 여러 가지 제약점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이후 우리가 겪은 변화는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인식의

들을 수정하게 하였으며 이는 고대사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인식체계의 수립은 개인의 개별적인 연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연구자 사이의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의 학회 활동이 개인의 개별연구를 중심으로 타성에 젖어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비판을 회피하거나 인맥, 학맥에 얽혀 학적 교류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활발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역사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연구자 사이의 학적 교류를 넓히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역사연구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까지 한국사가 교양 필수 강좌로 자리잡으면서 일반인들의 한국사 특히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고조에 부응하여 학계 차원에서 역사의 대중화를 위한 작업은 거의 행해지지 못하였다. 이는 일반대중용 역사교양잡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상황을 이용하여 학문외적인 관심을 가진 일부 논자들이 학문 활동에 간여하여 심지어 정치력이나 물리력까지 수반한 움직임 마쳐 보여 역사학의 학문적 순수성과 존립기반 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한국사 자체는 전공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 관심을 도외시하는 학문의 순수성 주장도 배격하면서 동시에 정치력과 결탁하거나 학문외적인 목적성이 개재된 사회분위기도 배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사 연구의 대중화와 학문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학회의 운영방침

본 학회는 기존학회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침에 의해 운영된다.

첫째, 기획발표를 시도하려는 점이다. 적어도 1년 후에 발표될 논제를 미리 공지하여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한국 고대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목이나 혹은 고대사회의 성격을 구명할 수 있는 핵심적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설정된 주제를 놓고 발표자 뿐 아니라 참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 연구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 연구의 차원으로 이끌어 연구자 상호간의 학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진력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2·3명의 지정 토론자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발표자는 여러 견해들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둘째, 연간 1회 발간 예정인(물론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확충되면 발간횟수를 늘려갈 것이다.) 학회지 외에도 정기적으로 1년 4회의 회보를 발간하려는 점이다.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그러한 시도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는 나름대로 독자적 특성을 살려 회보를 구성함으로써 고대사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정기발표회의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종합토론의 요점 정리나 근간 연구서의 서평, 주요 논문의 논문평 및 국내외 학계의 쟁점, 새로운 연구경향과 자료의 소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갖춘 회보가 되도록 유의할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공동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전공자 상호간의 인간적 관계를 다져가고 또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시정하거나 이견의 폭을 좁혀갈 작정이다. 그 사이 전공자들간의 학적 교류도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다.

넷째, 고대사 연구는 그 성격상 역사현장과 유리될 수가 없다. 때문에 본회는 정기적으로 유적지를 실지로 답사,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금석문 자료를 함께 탁본하고 공동으로 판독하는 기회를 가져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제일의 애로점인 자료 부족의 제약성을 극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회가 영남지역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발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지역적 편협성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거듭 밝혀두는 바이며 하루 빨리 전국적 규모의 고대사 연구학회가 발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때 우리는 이 학회기 그 속에 발전적으로 흡수되기를 기대한다. 이 조그마한 모임은 그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겠다. 모든 전공회원들이 의욕을 갖고 출발한 본 학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한국 고대사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1, 1987.6.30.)

창립경과

한국고대사연구회의 창립시발점은 1984년 4월에 대구시내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몇몇 고대사전공자들이 모여 《日本書紀》를 윤독하면서부터였다. 매주 목요일 두 시간 씩 진행된 木曜輪讀會는 윤독과 아울러 日本 古代 遺蹟地와 加耶地域의 歷史現場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3년에 걸친 《일본서기》의 윤독을 통해 전공자간의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공동토론을 위한 場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우리는 기존 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성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대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의 창립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1986년 11월부터 학회 창립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학회를 만드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학회창립의 필요성은 재삼 확인되어 참가자의 범위나 회칙문제 등 학회조직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11월까지의 학회창립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선에서 논의를 일단 마무리 짓고 참석자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구 이외의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에게 모임의 취지를 전하자 연

락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흔쾌히 응낙하여 1986년 12월에 전체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학회창립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모임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1987년 1월과 2월에 걸쳐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학회의 목적과 성격, 명칭 문제, 회칙문제, 회원의 범위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확정하였다. 그리고 학회의 창립일자는 1987년 2월 14일로, 창립총회 장소는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로 정하였다.

창립총회 때는 참가자의 범위를 영남 일원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고대사전공자로서 희망하는 자는 모두 망라하기로 하고 연락하였다. 창립총회 당일에는 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모인 사람이 모두 고대사 전공자여서 우리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이로서 한국고대사연구회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발기 취지문

해방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사연구는 분야별, 시대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고대사 연구도 연구인원의 증가면에서나 연구성과의 질, 양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고대사연구는 대체로 정치사 중심이거나 신라사에 편중되어 한국고대사회의 다양성을 밝히는 데는 제약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는 국가기원문제, 시기구분문제, 기본사료의 성격 규정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인원은 많이 증가되었지만 연구자 사이의 학적 교류는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사이의 학적 교류의 미비는 폭넓은 의견 교환의 부재를 가져왔으며 또 고대사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도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결과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고대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 고대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학술토론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의 실정으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 없었다. 본회를 조직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본회의 목적은 한국고대사연구의 심화를 통해 고대사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폭을 한단계 진전시키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회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연구가 부진한 분야의 공동연구, 특정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기획 연구 발표, 기본사료의 공동독회, 유적지 답사, 동·하계 워크숍 개최, 인접학문단체 및 외국에 있는 한국고대사 연구 단체와의 폭넓은 교류 그리고 회원상호 간이나 해외 연구단체와의 자료 교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고대사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본회는 우선 경남·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명실상부한 한국고대사연구회 발족의 초석이 됨에 불과하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일한 성격의 모임이 타지역에서도 확산되어 전국 규모의 학회가 하루 속히 발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87.2.14.

*한국고대사 연구회 발기인

김상현(동국대) 김태식(울산대) 노중국(계명대)
이명식(대구대) 이형우(영남대) 임세권(안동대)
조인성(경남대) 주보돈(경북대) 최광식(효성여대)
한규철(경성대)

(『韓國古代史研究』 제1집, 1988.7.20.)

II. 회보 및 학회지 발간사

*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발간사

발간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반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변혁하려는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응해 현재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지으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 까닭으로 한국사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인식에서 점차 탈바꿈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현실변혁의 논리는 새로운 한국사상의 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편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무척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연구를 보

다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창립된 한국고대사연구회에서는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외에 학회의 활동을 회원 여러분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또 회원상호간의 학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본 회보에서는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요지와 질의토론의 요지가 소개되며 동·하계 합동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과 학술답사 보고 등이 실리게 된다. 그리고 주요논문에 대한 논문평과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등이 소개되고 학계의 새로운 연구경향과 새로운 자료소개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 역사학계에서 정기적인 회보의 출현은 본학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회보발간이 보다 알차고 충실하게 이루어져 학회의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1987.6.30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1, 1987.6.30.)

* 『韓國古代史研究』 발간사

발간사

근대적인 역사연구 방법이 들어온 이후 한국사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학술모임은 크게 세 단계의 변천을 거쳐왔다. 첫째는 日帝下에서 국사를 비롯하여 문학·어학 등 國學研究를 목적으로 한 1934년의 震檀學會創立이며 둘째는 6·25戰亂의 渦中에서 당시의 젊은 학자들이 중심이 된 1952년의 歷史學會 창립이며, 셋째는 1967년에 국사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韓國史研究會의 창립이다. 학회창립의 이와 같은 변천은 우리 학계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사 연구도 더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昨今에 와서 우리 사회는 여러 分野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현실변혁의 실천적 요구와 더불어 韓國史學界에 대해서도 새로운 韓國史像의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이후 연구인원의 증가와 관심의 고조로 양적 질적 성장을 본 한국사 연구도 이제는 時代別·分野別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韓國古代史研究會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성 속에서 1987년에 창립을 보게 되었다.

본 학회의 목적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이를 올바르게 體系化하고 그 결과를 大衆化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학회는 古代史研究의 새로운 方法論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오는 歷史認識의 한계성을 극복하며 연구자 상호간의 긴밀한 學問的 交流와 공동연구 공동토론을 활성화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연구성과들을 우리 사회와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하였다.

본 학회는 창립이후 기존의 학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반성하면서 수준 높은 학술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劃研究發表를 계획하여 그 동안 4회의 정기발표회와 1

회의 合同討論會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歷史現場의 공동답사, 金石文의 공동조사 등 共同研究와 討論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처럼 계획하였던 학술발표와 토론이 所期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 연구성과들을 하나로 묶을 學會誌의 발간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본 학회는 韓國古代史研究라는 題名の 學會誌 발간을 추진하여 이제 創刊號를 내놓게 되었다.

본 학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고대사 전공자들이 시대적 사명감과 학문적 정열에서 만든 학술단체이며 본 학회지는 고대사 전공자들의 학술발표와 토론을 수렴하는 學問의 場이다. 따라서 본 학회지의 창간으로 학회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나와 고대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한국 고대사의 이해수준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학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지 1년만에 창간호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지 발간을 흔쾌히 전담해 주신 知識産業社의 金京熙 社長님의 後援 덕분이었다. 이 기회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학회기 끊임 없이 성장하고 본 학회지가 알차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들을 담아 學界에 기여할 수 있도록 同學諸賢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1988.3

韓國古代史研究會

(『韓國古代史研究』 제1집, 1988.7.20.)

디지털 전환기 고대사 연구의 다층화와 확장(1997~2010)

박대재(고려대)

1. 한국고대사학회로의 새 출발

1987년에 창립된 한국고대사연구회가 10주년인 1997년에 한국고대사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¹⁾ 1997년부터 학회지 『한국고대사연구』도 연 2회 간행하는 것으로 규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학술지 발행 연구 단체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었다. 2000년부터는 등재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시 연 4회로 증간하였고, 2002년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되고 2005년에 등재지가 되었다. 한국고대사학회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대사 대표 학회로서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이다.

한국고대사학회의 변화는 1997년 5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었는데, 당시 회장 한규철 교수와 연구이사 김태식 교수의 노력으로 역사 관련 학회 가운데 선구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²⁾ 1998년에는 홈페이지 관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보이사를 신설하였다. 김태식 교수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정보이사를 도맡아 학회의 정보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2005년에는 누리미디어(DBpia)와 협약을 맺고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고, 학회지 논문 PDF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었다.³⁾ 디지털 전환기라고 일컬어지는 2000년 전후에 역사학 학회 가운데 선구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디지털 자료를 제공한 것은 주목할 변화이자 성과이다. 이러한 노력이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필자 역시 2000년 전후 박사논문을 준비하며 학회에서 제공한 디지털 자료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2007년에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⁴⁾을 발간하여

-
- 1) 1997년 2월 14일(충남대)에 열린 총회에서 ‘한국고대사학회’로 학회명 변경이 결정되었다. 2월 말에 발간된 『한국고대사연구』 11호에는 아직 ‘한국고대사연구회’로 되어 있고, 1997년 10월에 발간된 12호부터 ‘한국고대사학회’로 학회명이 바뀌어 나왔다.
 - 2) 한국고고학회는 2000년 5월에, 한국역사연구회는 2000년 12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1997년 개통 이후 2014년까지 학회 홈페이지는 김태식 교수가 재직하던 홍익대학교 서버를 이용하였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hongik.ac.kr/~kosa>).
 - 3) 2007년부터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reaancienthistory.net>로 변경
 - 4) 한국고대사학회 편, 2007,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한국고대사학회 20년, 1987~2006)』, 서경문화사.

20년간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① 국가별 연구의 흐름, ② 최근 연구의 주요 쟁점, ③ 연구 자료의 확대와 재해석, ④ 연구 지평의 확대와 주제의 다변화, ⑤ 부록 등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42개의 주제로 정리되었다. ①②는 기존 연구사 중심의 서술이며, ③④는 연구 자료와 연구 주제를 정리한 새로운 시도였다. “연구 자료의 확대와 재해석”, “연구 지평의 확대와 주제의 다변화”는 2000년 전후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왕에 학회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정리한 선행 연구⁵⁾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기라 불리는 2000년 전후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 자료와 연구 주제의 경향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 있는 정기발표회 논문보다는 합동토론회나 하계세미나 등 기획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특집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2. 연구의 증가와 층위의 확대

표 1. 1987~2010년 한국 고대사 연구 논문 편수

연도	총 논문 편수	『한국고대사연구』 논문 편수
1987~89	380여 편	16
1990~95	1,200여 편	45
1996~97	278편	28
1998	133편	21
1999	213편	19
2000	260여 편	43
2001	280여 편	32
2002	302편	31
2003	약 350편	35
2004	279편	45
2005	논저 총 300여 편	30
2006	논저 약 400편	35
2007	(566편)	36
2008	(498편)	41
2009	526편	43
2010	428편	37
합계	6,393여 편	537(8.4%)

5) 노중국, 2007, 「한국고대사학회 2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46.
 이영호, 2007, 「한국고대사연구, 그 도전과 응전-정기발표회 100회의 분석(1987~2007)」, 『한국고대사연구』 48.
 이강래 외, 2017, 「한국고대사학회 30년을 말한다-한국고대사학회 창립 30주년 좌담회」, 『한국고대사연구』 87.
 하일식, 2020, 「한국 고대사 연구 33년간의 발자취」, 『한국고대사연구』 100.

표 2.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발표주제 분류(1987~2010)

구분	고고학	고조선	낙랑삼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삼국)	삼국일반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고대일반	사료사학사	기타	계
1987~88				1	1	1	4	1	2						10
1989~90	1			2	2		4						1		10
1991~92		1	2	3	1	1	2	1	2	1	3				17
1993~94		1		1	1	2	5	1	3	1			1		16
1995~96			1	5	2		3		3				2	1	17
1997~98	3		1		3		3		3	1		2	3		19
1999~00	2	1	1	6	5	2	4	2	4	1	1			1	30
2001~02	3	1	2	12	2	1	5		11	1				2	40
2003~04	2	2	1	11	2		6		5	2		2	1	2	36
2005~06	1	1	1	10	6	1	4		10	1		4		2	41
2007~08	1	1	1	6	8	1	8	1	12	1			3	5	48
2009~10	4	1		5	5	3	9	1	4			6	6	3	47
누계	17	9	10	62	38	12	57	7	59	9	4	14	17	16	331
비율	5.1	2.7	3.0	18.7	11.5	3.6	17.2	2.1	17.8	2.7	1.2	4.2	5.1	4.8	100

위의 두 표는 1987년 이후 2010년까지 『역사학보』(회고와 전망)⁶⁾에서 정리한 통계와 이영호 교수가 정리한 2007년까지의 정기발표회 통계⁷⁾를 바탕으로 하되 통계가 빠진 부분은 추가해 작성한 것이다.

1998년까지 연간 100여 편 발표되던 논문 편수가 1999년부터 200편 이상으로 증가하고 2009년에는 다시 400편 이상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 1998~2009년 사이에 논문 편수가 4배로 급증한 것이다.⁸⁾ 이러한 논문 편수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연구자나

6) 김두진, 1990, 「고대(1987~1989)」, 『역사학보』 128; 서영대, 1996, 「고대(1990~1995)」, 『역사학보』 152; 최광식, 1998, 「고대(1996~1997)」, 『역사학보』 159; 이문기, 1999, 「고대(1998)」, 『역사학보』 163; 양기석, 2000, 「고대(1999)」, 『역사학보』 167; 전덕재, 2001, 「고대(2000)」, 『역사학보』 171; 조법종, 2002, 「고대(2001)」, 『역사학보』 175; 이영호, 2003, 「고대(2002)」, 『역사학보』 179; 임기환, 2004, 「고대(2003)」, 『역사학보』 183; 전호태, 2005, 「밖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와 기회, 2004년의 한국고대사연구」, 『역사학보』 187; 김창겸, 2006, 「확대되는 한국고대사, 2005년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191; 조인성, 2007, 「고대사 연구의 성과」, 『역사학보』 195; 김수태, 2008, 「고대사 연구-반성과 도약」, 『역사학보』 199; 김영심, 2009, 「한국 고대사 연구 10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연구방향의 모색」, 『역사학보』 203; 여호규, 2011, 「2009~2010년 한국고대사 연구동향」, 『역사학보』 211.

2007~2008년의 통계는 빠져 있어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 논문 목록을 참고해 추가하였다.

7) 이영호, 2007, 앞의 논문, p.371. 2008~2010년 정기발표회 발표 주제 분류는 학회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해 추가하였다.

학회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PC)의 보급, 한글 워드프로세서(한글)의 상용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자료의 활용 등으로 인해 개인 연구자의 논문 생산력이 빠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1989년 4월 국내에서 개발된 한글 워드프로세서인 ‘한글 1.0’이 처음 출시되었고, 1990년 10월 9일(한글날)에 ‘(주)한글과컴퓨터’가 설립되면서 ‘한글’ 프로그램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글’은 1997년 IMF로 매각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국민적 모금 운동으로 다시 자립하였고 감사의 의미로 파격적인 가격(1만원)의 ‘한글 8.15’을 출시하면서 ‘한글’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PC의 급속한 보급도 개인 연구자의 논문 작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에 가정용 PC의 보급률이 11%였다가 1999년에는 52%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⁹⁾에서 당시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필자도 1996년에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PC와 한글을 사용하여 선배들보다 빠른 속도로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2004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소장된 종이책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때 소요된 시간은 최대 1/3,000로 줄어든다.¹⁰⁾ 인터넷을 이용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고대사 관련 자료 중 가장 먼저 전산화된 것은 『삼국유사』의 원문이었다. 1992년 1월에 한국사상사연구소에서 『三國遺事引得』¹¹⁾을 간행하기 위해 『삼국유사』의 원문 총 90,361자(한자 종류 총 3,529자)를 디지털 텍스트로 전산화한 것이다.¹²⁾ 하지만 ‘XED’라는 특별 설계 에디터를 통해 한자의 텍스트화가 이루어진 데다 책자 형태로 색인만 간행되면서, 가독형 원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연구자들에게 보급되지는 못했다.

한국사에서 디지털 자료의 활용은 1995년 조선왕조실록 CD-ROM 개발로부터 시작되었다.¹³⁾ 이 여파로 1996년 이후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CD-ROM 제작이 이루어

8) 2000년에 『한국고대사연구』 논문 편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때부터 연 4회로 증간되었기 때문이다.

9)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국민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이남희, 2003, 「인문학과 지식정보학」, 『인문콘텐츠』 창간호, p.183 참조.

10) 주성지, 2016, 「한국 고대사 관련 디지털 역사자료 구축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84, p.29 참조.

11) 김용옥, 1992, 『三國遺事引得』(韓國思想史研究所 韓國學古典引得叢書1), 통나무.

12) 김현, 2012, 「『삼국유사인득』 전산 처리 과정」,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pp.139~142.

13) 이남희, 2003, 앞의 논문, p.119. 한국사 문헌자료의 전산화를 처음 시도한 것은 와그너(Edward W.Wagner)와 송준호 교수가 문과방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196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조선시대 1만 4,600여 명의 문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이남희, 2000, 「조선시대 자료의 전산화-데이터베이스 구

졌다. 그런데 CD라는 물리적 매체의 한계가 보편화의 실패로 이어졌다. 적지 않은 가격으로 일반이용자가 구매하기 힘들고, 디지털 자료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한 점도 한계였다. 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단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CD-ROM의 인터넷판인 웹 DB가 개발되었으나, 이 역시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 기관의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국사 자료의 전산화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1999년 국가 연구 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을 통해 구축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 자료가 인터넷으로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고대사 DB 자료의 서비스가 시작되어, 중국정사 조선전, 삼국사기 등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무렵에 대만 중앙연구원 한적전자문헌(25史) DB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사료의 전문 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¹⁴⁾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구축된 디지털 자료의 등장은 고대사 연구의 방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가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 자료 중 참고할 만한 것을 찾기도 수월해졌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과 폭이 넓어지고 참신한 주제의 연구도 등장하였다.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로 인해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확대, 한국사에 대한 소비의 급증”¹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디지털 자료의 활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07년 10월에 열린 제98회 정기발표회에서 「한국고대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소개와 활용」(주성지)에 대한 소개가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논문 PDF를 열람하고 많은 양의 사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논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고대사 논문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PC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자료의 활용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고대사 관련 세부 전문 학회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고구려연구회(현 고구려발해학회), 1997년 단군학회가 설립되고, 2000년대에 들어가 신라사학회(2003), 고조선사연구회(2004, 현 고조선·부여사연구회), 한국목간학회(2006), 백제사연구회(2008, 현 백제학

축의 현 단계와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2, p.176).

14) 조법종, 2000, 「인터넷을 이용한 韓國古代史 關聯史料의 검색과 활용-中國의 25史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8.

15) 한상구, 2001, 「한국 역사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역사학회 편), 서울대 출판부, pp.49~52. 이 글이 발표되었던 제43회 전국역사학대회(2000.5.26~27.)의 공동 주제가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였다는 것도 당시 디지털화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회), 고조선학회(2008)¹⁶⁾가 설립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답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의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북방사에 관한 연구가 이전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 아차산에서 고구려 보루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1970~80년대 조사되었던 남한 지역 고구려 유적이 다시 조명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 몽촌토성 발굴(1983~1989) 이후 1990년대에는 부여 능산리 사지 발굴(1992~2000)과 풍납토성 발굴(1997~) 등 대규모 백제 유적 조사가 이어지고 금동대향로·창왕명사리감·목간 등 새로운 자료가 출토되면서 학계와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1991~2003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156점의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면서 목간이 새로운 연구 자료로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⁷⁾

이러한 계기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고 다양한 전문 학회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래하는 문헌자료뿐 아니라 출토 문자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서 고대사 연구의 층위가 이전보다 두꺼워지고 넓어지게 되었다.

3. 기획 연구의 공동주제와 방향

1) 기획 학술회의 공동주제

한국고대사학회의 대표 학술회의인 합동토론회는 학회 창립 다음 해인 1988년 2월에 대구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이래 2026년 2월까지 총 39회가 열렸다. 1999년부터는 매년 2월에 열리던 합동토론회에 추가해 여름방학 중에 하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학회 토론 문화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2025년 7월까지 총 27회가 개최되었다.

1999년 7월에 계룡산 동학산장에서 처음 열린 하계세미나는 그 이후에도 장소는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져 겨울 합동토론회와 함께 한국고대사학회를 대표하는 기획 학술회의로 자리를 잡았다. 1996~2010년 개최된 합동토론회와 하계세미나의 공동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6) 단군학회와 고조선학회는 2011년에 고조선단군학회로 통합되었다.

17) 윤선태, 2007,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p.469에는 2006년 12월까지의 국내 목간 출토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함안 성산산성에서 목간이 계속 출토되어 2022년까지 총 245점의 목간이 보고되었다(윤재석 편저, 2022, 『한국목간총람』, 주류성).

18)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지 彙報를 참고해 정리하였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

표 3. 1996~2010년 합동토론회 및 하계세미나

연월 (장소)	구분	공동주제	특집 게재
1996.2 (성대)	제9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지배	11호(1997.2)
1997.2 (충남대)	제10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의 인간과 생활	12호(1997.10)
1998.2 (경성대)	제11회 합동토론회	외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	14호(1998.11)
1999.2 (송실대)	제12회 합동토론회	한국고대의 전쟁과 사회변동	16호(1999.11)
1999.7 (동학산장)	제1회 하계세미나	한국 고대사회의 부와 부체제	17호(2000.3)
2000.2 (충남대)	제13회 합동토론회	고대 한국인의 정신세계	20호(2000.12)
2000.7 (동학산장)	제2회 하계세미나	신라 촌락문서 연구의 제문제	21호(2001.3)
2001.2 (고려대)	제14회 합동토론회	삼국통일과 동아시아	23호(2001.9)
2001.7 (동학산장)	제3회 하계세미나	4~5세기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의 만남	24호(2001.12)
2002.2 (고려대)	제15회 합동토론회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조명	27호(2002.9)
2002.7 (동학산장)	제4회 하계세미나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체계 검토	29호(2003.3)
2003.2 (원주 토지문화관)	제16회 합동토론회	고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조명	32호(2003.12)
2003.7 (동학산장)	제5회 하계세미나	동아시아에서의 낙랑	34호(2004.6)
2004.2 (영남대)	제17회 합동토론회	고대 동아시아의 천도	26호(2004.12)
2004.7 (공주박물관)	제6회 하계세미나	동아시아사 속의 부여사	37호(2005.3)
2005.2 (고려대)	제18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39호(2005.9)
2005.8 (동학산장)	제7회 하계세미나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제문제	41호(2006.3)
2006.2 (중앙박물관)	제19회 합동토론회	삼국사기 원전 연구	42호(2006.6)
2006.9 (충남대)	제8회 하계세미나	한국 고대사 속의 이방인 -인문 교류와 문화적 역동성-	44호(2006.12)
2007.2 (경북대)	제20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사의 시기 구분	46호(2007.6)
2007.7 (동학산장)	제9회 하계세미나	한국 고대의 지방통치와 촌락	48호(2007.12)
2008.2 (이대)	제21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국가 멸망기의 양상과 원인	50호(2008.6)
2008.7 (동학산장)	제10회 하계세미나	민족주의 사학과 한국고대사 연구	52호(2008.12)
2009.2 (경북대)	제22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의 신분제	54호(2009.6)
2009.7 (동학산장)	제11회 하계세미나	신발견 문자자료와 한국고대사 연구	57호(2010.3)
2010.2 (충북대)	제23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사 연구와 역사지리 고증	58호(2010.6)
2010.7 (동학산장)	제12회 하계세미나	식민주의적 한국고대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61호(2011.3)

도 있고, 학회지 DB에 휘보가 빠진 호(53호, 59호, 60호)도 있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합동토론회와 하계세미나의 공동주제는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나 학계의 연구 경향을 고려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2월에 열린 제9회 합동토론회의 공동주제인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지배”는 1년 전 제8회 합동토론회에서 결정되었는데, 1995년 2월에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기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였다. 1995년 6월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합동토론회의 공동 주제가 고대의 지방제도로 결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무렵 학계에서는 지방제도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하였다.¹⁹⁾

2002년 2월에 개최된 제15회 합동토론회 공동주제인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조명” 역시 1년 전인 2001년 2월에 결정되었는데, 2002년 6월에 개최된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⁰⁾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17회 합동토론회 공동주제인 “고대 동아시아의 천도”도 2003년 당시 국가적 이슈였던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시사적인 역사 문제나 특정 이슈와 관련된 연구는 다른 학회나 기관과의 공동 기획 학술회의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표 4. 1996~2010년 공동 기획 학술회의

연월	주제	특집 게재	장소
1999.10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적 특성	18호(2000.6)	고령군청
1999.1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내용과 성격	19호(2000.9)	창원문화재연구소
2002.12	제70회 정기발표회 기념 학술대회 -고구려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31호(2003.9)	서울역사박물관
2003.9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단행본(2004.1)	고령군청
2003.12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실태와 대처 방안	33호(2004.3)	서울역사박물관
2003.12	한국, 동아시아 역사상의 후백제	35호(2004.9)	국립전주박물관
2004.1	중국의 고구려 유적 정비현황과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33호(2004.3) ²¹⁾	대우재단빌딩
2004.3	고구려사 국제학술 심포지엄-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단행본(2004.9)	서울역사박물관
2007.9	고대 한일문화교류 학술대회-고대의 한일관계와 近畿지역	49호(2008.3)	충북대학교
2008.9	현대의 한국 고대사학자	53호(2009.3)	국민대학교
2009.10	신발견 포항중성리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	56호(2009.12)	포항시청

19) 주보돈, 1995, 『新羅 中古期の 地方統治와 村落』,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김현숙, 1997, 『高句麗 地方統治體制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김영심,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현숙,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 2001년 당시 필자가 총무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회장은 최광식 교수, 총무이사는 김태식 교수였다.

이 가운데 1999년과 2003년에 경상북도 고령군과 공동 기획으로 개최된 대가야사 학술회의는 당시 학회의 주 관심 분야와도 관련해 주목된다. 1999년에 고령군은 제1회 대가야학술회의를 기획하여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적 특성’이란 주제로 한국고대사 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2001년에 제2회로 ‘대가야와 주변제국’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대가야학술총서 제1집을 간행하였다.²²⁾ 2003년에 제3회 학술회의를 다시 한국고대사학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가야학술총서 제2집으로 발간하였다.²³⁾

한국고대사학회에는 창립 초기부터 가야사에 관한 관심이 남달랐다. 창간호의 논문 구성이 신라편 4편, 가야편 3편으로 이루어진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회 창립의 계기가 “『일본서기』 윤독과 일본 고대 유적지와 가야지역의 역사 현장 답사”²⁴⁾인 데서도 짐작된다. 이후에 경상북도 지원을 받아 편집 간행한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1995)²⁵⁾와 『가야문화도록』(1998)²⁶⁾도 그 연장선에 있다.

2010년대 이후에도 한국고대사학회의 가야사 공동 연구는 계속 기획되어 여러 번의 학술회의와 그 결과를 담은 단행본이 여러 권 출간되었다.²⁷⁾ 삼국과 달리 가야 관련 학회가 따로 없었던 시기²⁸⁾에 한국고대사학회가 가야사 연구 분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획 학술회의에 관해선 연구의 자료와 기본 관점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로 방향을 나눠 아래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21) 2004년 1월 30일 기획발표회는 중국고구려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고(2023.12.23.~28) 온 뒤 답사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발표문이 학회지나 단행본으로 따로 출간되지 않았다. 당일 발표자 가운데 조법종만 발표문을 정리하여, 『한국고대사연구』 33호에 「(신자료 소개)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 방울」로 게재하였다.

22) 제2회 대가야학술회의는 한국상고사학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단행본(고령군.한국상고사학회 편, 2002, 『大加耶와 周邊諸國』, 학술문화사)으로 간행되었다.

23)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편, 2004,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24)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88, 『韓國古代史研究』 1에 실린 「창립경과」 참조.

25)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95,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26)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98, 『가야문화도록』, 경상북도. 해설편에 실린 「가야와 가야사」(주보돈), 「가야의 정치」(노중국), 「가야의 문화」(김세기)는 1995년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1997년 2월 이후 한국고대사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1998년 3월에 간행된 이 책에는 아직 ‘한국고대사연구회’로 표기되어 있다.

27) 한국고대사학회 편, 2018,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2019, 『문헌과 고고 자료로 본 가야사』, 주류성; 2020, 『가야와 주변, 그리고 바깥』, 주류성; 2021, 『한국고대사와 창녕』, 주류성; 2024, 『우리시대의 가야사』, 주류성. 이 시기 가야 학술회의와 단행본은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8) 가야사학회는 최근 2021년 3월에 창립되었다. 고구려연구회(1995), 신라사학회(2003), 백제사연구회-백제학회(2008)에 비해 가야사학회 창립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2) 연구의 방향과 주요성과

1988년 제1회 합동토론회의 공동주제는 “한국고대국가형성에 관한 제문제”였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과 후속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묶여 간행되었다.²⁹⁾ 이 책의 주된 내용은 1970~80년대 국내 고대사 학계의 큰 화두였던 국가 형성 문제에 관한 이론적·연구사적 검토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국가 형성 연구를 돌아보며 그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총론에서 제시한 과제의 전망은 1990년대 이후 고대사 연구의 방향 전환을 짐작하는 데 참고가 된다.

A.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일반화된 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고대사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론하고 그것들을 비교 종합하여 국가발전 단계를 설정한 뒤 그것을 외국의 이론과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삼국지』 동이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어떠한 각도에서 파악하며 『삼국지』 동이전과 관련시켜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면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대되는 고고학 자료를 문헌자료와 어떻게 접할 것인가 하는 면들도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³⁰⁾

위의 글에서는 외국 인류학의 보편적 이론을 원용해 한국 국가 형성을 논의하던 1980년대까지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삼국지』 동이전, 『삼국사기』 초기 기록, 고고학 자료 등의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고대사의 국가 발전 단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사적인 국가 형성 이론의 보편성보다 한국 고대사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가 형성 과정을 파악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전망은 1988년과 1989년에 울진 봉평비와 영일 냉수리비가 연달아 발견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보편적 이론보다 고대사 연구의 기초 자료인 문헌자료와 금석문 등 원전 텍스트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게 된 것이다.

29) 한국고대사 연구회 편, 1990,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1988년 2월의 합동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그 이후 분기별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개별국가에 관한 논문을 모은 것이다.

30) 노중국, 1990, 「總論-韓國 古代의 國家形成의 諸問題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한국고대사연구회), 민음사, p.14.

(1) 출토 문자 연구와 텍스트화

사실 봉평비와 냉수리비 발견 이전부터 한국고대사연구회는 금석문에 큰 관심을 두고 공동 판독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왔다. 대구 무술오작비, 영천 청제비, 남산신성비 등에 대한 공동 판독은 봉평비가 발견된 1988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창립 초기부터 금석문 연구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1987.6~1994.8, 총 35호)³¹⁾에 실려 있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고대사연구회 금석문 공동 판독회

구분	일시	판독 대상	비고
제1차	1987.8.13.	大邱 戊戌塢作碑	판독문(회보 2)
제2차	1987.11.15.	永川 菁堤碑(貞元銘)	판독문(회보 3)
제3차	1987.12.13	관문성 성벽 석각	
제4차	1988.2.29.	南山新城碑(제1비)	판독문(회보 5) ³²⁾
	1988.4.16~5.5.	울진 봉평 신라비	
제5차	1988.6.5.	울주 川前里 書石(原銘)	판독문(회보 6)
제6차	1988.8.13.	永川 菁堤碑(丙辰銘)	판독문(회보 13) ³³⁾
	1989.4.14.	영일 냉수리 신라비	판독문(회보 10)
	1990.8.18~19.	울주 川前里 書石(追銘)	판독문(회보 17) ³⁴⁾
	1991.4.21.	창녕 진흥왕순수비	판독문(회보 20)

공동 판독문 외에도 『회보』에는 금석문 자료를 소개한 글이 다수 실려 있다.³⁵⁾ 공

31)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는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내에 PDF로 올려져 있다.

32) 남산신성비 제2비의 판독문은 『회보』 18호(1990.11.31.)에, 제4비의 판독문은 19호(1991.1.30.)에 실렸다.

33) 『회보』 7호(1988.8.31.)에는 영천 청제비 병진명에 대한 공동 판독회가 1988년 8월 13일에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13호(1989.11.30.)에는 1988년 10월, 1989년 3월, 11월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고 하며 판독문을 실어 놓았다.

34) 癸巳銘의 판독문은 『회보』 24호(1992.1.31.)에, 乙丑銘의 판독문은 25호(1992.3.31.)에 실려 있다.

35)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新羅時代 金石文」(노중국, 14호),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環頭大刀의 銘文」(주보돈, 16호), 「百濟 黑齒常之 墓誌銘」(이문기, 21호), 「百濟 黑齒俊 墓誌銘」(이문기, 22호), 「高句麗 銘文入金銅板」(김정숙, 23호), 「癸酉銘 阿彌陀三尊四面 石像」(김정숙, 26호), 「石刻 金可記傳」(이문기, 27호), 「고려의 이슬람교도 라마단의 묘비」(최광식, 28호), 「王基墓誌」(서영대, 30호), 「陝川 梅岸里碑」(김상현, 31호), 「『高麗

동 판독문과 합치면 거의 매회에 금석문 자료가 소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 판독문은 『역주 한국고대금석문』(1992)³⁶⁾의 편찬 과정에 많이 참조 반영되었다.

금석문 공동 판독은 사료가 빈약한 고대사 분야에서 금석문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釋文의 작성이 긴요하다는 인식³⁷⁾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회 설립 초기의 금석문에 대한 높은 관심은 회보 발간이 중단된 1995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99년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내용과 성격” 학술회의는 고대사에서 연구해야 할 원전 텍스트의 범위가 문헌자료에서 금석문을 넘어 다시 목간으로 더욱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80년대에도 경주 월지(안압지)와 부여 관북리 등지에서 목간이 출토된 바 있었지만,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가 부여 능산리 사지, 부여 공남지 등에서 백제 목간이 연이어 출토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함안 성산산성에서 1991~2003년 사이 156점의 목간이 한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2009년에는 신발견 문자 자료에 대한 학술회의가 두 번 연달아 개최되기도 하였다. 먼저 7월 제11회 하계세미나의 주제가 “신발견 문자자료와 한국고대사 연구”였고, 10월에 개최된 공동 기획 학술회의의 주제도 “신발견 포항중성리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이다.

1999년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공동주제로, 2009년에는 포항 중성리비를 공동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려, 1988년과 1989년에 열렸던 봉평비와 냉수리비 기획 학술회의의 전통을 이었다. 공교롭게도 10년마다 새로운 문자 자료가 발견된다는 ‘10년 주기설’³⁸⁾을 입증이나 하듯 꼭 20년 만에 2009년 5월에 중성리비가 새로 발견되어 고대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때마다 한국고대사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성산산성 목간이 처음 출토된 시점은 아니지만 학술회의가 1999년에 열려 10년마다 신발견 문자 자료에 관한 기획 학술회의가 열린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고대사 연구에서 문헌 기록과 더불어 금석문, 목간 등의 출토 문자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필사체에 가까운 古文字를 어떻게 전산화하여 디지털 문자 즉 텍스트로 구현하여 기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史』에 보이는 新羅 軍制 관련 銅印」(이문기, 32호), 「南山新城碑 제9비」(박방룡, 33호), 「蔚珍 昭光里 黃腸封界 標石」(최광식, 34호). 이외에도 8호에 1988년 발견된 明活山城碑의 사진이, 9호에는 합천 저포리 출토 토기 명문 사진과 안내가 실려 있다.

3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7)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1987.9), p.9.

38) 1978·79년에 단양 적성비와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되고, 1988·1989년에 울진 봉평비와 영일 냉수리비가 발견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말이었다(이문기, 2009, 「포항 중성리비의 발견과 그 의의-「냉수리비」의 재음미를 겸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6, p. 7).

PC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연구자가 직접 입력하게 되면서 출토 문자를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없는 이체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비슷한 모양의 다른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문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글자만 손글씨 이미지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초기 워드프로세서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입력이 쉽지 않았다. 즉 출토 문자 중 판독이 어려운 문자의 텍스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에 간행된 『회보』는 조판 인쇄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금석문의 판독문을 손글씨로 직접 써서 표기하였다. 조판 문자에 해당 글자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금석문이 전자 텍스트로 전산화되기 시작한 것은 『역주 한국고대금석문』(1991~1992)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독문의 디지털 텍스트화는 금석문 DB 구축을 위한 첫 단계다. 인터넷을 통한 금석문 원문 서비스와 검색 기능도 텍스트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금석문, 목간 등 출토 문자의 본격적인 DB화는 2002~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DB 구축에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의 텍스트 DB가 크게 활용되었다. 2004년 5월 31일에 금석문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로 금석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³⁹⁾

금석문, 목간 등에 보이는 출토 문자의 텍스트화는 고대사 연구 자료의 확충뿐만 아니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주기도 하였다. PC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텍스트화된 출토 문자 자료를 쉽게 참고하게 되면서 논문에서 구사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한국고대사학회의 금석문과 목간 등에 관한 지속적인 공동 판독과 기획 연구는 출토 문자가 고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잡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향후에는 출토 문자에 대한 공동 판독이나 해석을 넘어서 텍스트의 행간과 이면에 담긴 서사나 담론까지 분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제는 출토 문자의 텍스트화 단계를 넘어 텍스트를 대상화하고 분석하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⁴⁰⁾의 시각이 필요하다. 문헌 사료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듯

39) 현재는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유산 지식이음(연구DB/금석문)에서 2019년까지 구축된 총 2,940건의 금석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40)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자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가 제창한 ‘언어적 전환’은 역사적 문헌을 언어적 서사와 산문적 담론이 담긴 언어적 인공물(Verbal artifact)로서의 텍스트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헤이든 화이트(천형균 옮김), 1991,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 메타역사』, 문학과 지성사; 조지 이거스(임상우·김

이 출토 문자를 텍스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서사나 담론을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출토 문자는 1차 사료라는 점에서 문헌 사료에 비해 사료 비판에서 관대한 대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출토 문자도 기본적으로 언어적으로 구성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 속에는 화자(narrator)의 주관이 담겨 있다. 어쩌면 내부자의 기록일 가능성도 전혀 간과할 수 없다. 외부자의 시각에서 정리된 문헌 사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것이다.

(2) 동아시아로의 확장

1996~2010년 기획 학술회의 공동주제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키워드는 ‘동아시아’이다. 공동주제에 ‘동아시아’가 직접 들어간 학술회의가 5회,⁴¹⁾ 제목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와 관련된 학술회의가 5회로⁴²⁾ 총 10회가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一國史’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보고자 한 당시의 학술적 흐름⁴³⁾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직접적으로는 2000~2001년에 있었던 일본 후쇼사(扶桑社) 역사 교과서 파동과 2003년에 국내에 알려진 중국 동북공정(2002~2007)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 동아시아 3국 간 역사를 둘러싼 분쟁의 영향이 컸다.

특히 근현대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한일 간의 역사분쟁과 달리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발해사 등 고대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 고대사 학회의 반응이 적극적이었다.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진 2003년 후반 이후 2004년까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학술회의가 한국고대사학회 주관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지고 사회적 이슈로 본격 대두한 것은 2003년 10월부터였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02년 12월에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제70회 정기발표회 기념 학술대회(공동주제-고구려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에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

기봉 옮김), 1998, 『20세기 사학사: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역사학은 끝났는가?』, 푸른 역사 참조.

41) 삼국통일과 동아시아(2001), 동아시아에서의 낙랑(2003), 고대 동아시아의 천도(2004), 동아시아사 속의 부여사(2004), 한국-동아시아 역사상의 후백제(2003).

42) 외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1998),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조명(2002), 고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조명(2003), 한국 고대사 속의 이방인(2006), 고대의 한일관계와 近畿지역(2007).

43) 한국 측의 발의로 2000년 1월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결성한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0~2004년 5회의 워크숍과 16회의 공개 세미나가 열렸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라.

임지현 외, 2002, 『기억과 역사의 투쟁: 2002년 당대비평 특별호』, 삼인출판사.

임지현·이성시 편, 2004,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구려사 귀속 문제가 이미 지적⁴⁴⁾된 바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역사 왜곡 문제를 앞서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도 중국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해 2003년에 ‘동명왕 출생 2300돐 기념 고구려사 전국학술토론회’를 열고 중국의 연구를 비판한 바 있었다. 여기서 동북공정의 대표 연구인 『中國高句麗史』(2002) 등의 내용을 비판하고 고구려의 역사적 위치를 밝힌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책으로 출간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1년 후 고구려연구재단에 의해 남한에서 단행본⁴⁵⁾으로 출간되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학회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은 2003년 12월 9일에 한국고대사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개최한 학술토론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학술토론회의 공동주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실태와 대처 방안”이었으며,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이 『한국고대사연구』 33호에 특집으로 실렸다.

사실 이에 앞서 2003년 10월 31일 일본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된 ‘중국의 역사 왜곡 공개토론회’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한 국내에서 첫 번째 발표토론회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11월 2일에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학회 고문들과 임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⁴⁶⁾를 구성하였다. 이 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2월 9일에 17개 학회가 참여하는 공동 학술토론회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것이다.⁴⁷⁾

2004년 1월 30일에 열린 기획발표회는 대책위원들이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고(2023.12.23.~28) 온 뒤 답사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발표문이 학회지나 단행본으로 따로 출간되지는 않았다.⁴⁸⁾ 한국고대사학회 중심 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불러왔고, 2004년 3월 1일 고구려연구재단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월 26~27일에 한국고대사학회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 심포지엄(주제-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44) 여호규, 2003,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現況」, 『한국고대사연구』 31, 37쪽.

45) 고구려연구재단 편(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 집필), 2004,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3년 북한의 중국 동북공정 대응 과정은 최광식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46)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광식, 한규철, 대책위원은 공석구, 박경철, 여호규, 송기호, 임기환, 조법중, 전호태 등이 맡았다.

47) 최광식,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44~45쪽.

48) 기획발표회에서 발표된 글 가운데 조법중 교수의 발표문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방울」만 『한국고대사연구』 33에 신자료 소개로 게재되었다.

재단 설립을 기념한 학술행사이기도 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이후 단행본⁴⁹⁾으로 묶여 간행되었다.

2005년 8월에 열린 제5회 하계세미나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제문제”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기획 공동 연구였다. 2004년 이후 고구려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⁵⁰⁾ 고구려사 박사학위논문⁵¹⁾이 눈에 띄게 많이 나온 것도 동북공정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와 관련한 기획 연구가 증가한 데는 고대 대외관계⁵²⁾나 교역⁵³⁾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전통적인 주제인 한중관계사 외 한일관계사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한일관계사학회가 1992년에 창립되면서 1993년부터 학술지가 발행되었지만 고대사 논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고대사 논문 비중이 비교적 높아진 것은 2000년대 이후인데, 1990년대 이후 편찬된 사료집(자료집)과 역주집도 큰 역할을 하였다.⁵⁴⁾

1994년에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자료집으로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⁵⁵⁾가 처음 발간되었다. 이 책의 원문과 역주는 2000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B로 서비스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⁵⁶⁾, 『일본 고종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⁵⁷⁾이 나오고, 2013년에 『역주 일본서기』⁵⁸⁾가 간행되어 기본 사료의 역주가 완성되었다. 1990년대부터 기본 사료가 집성되고 역주되면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다.

사실 『일본서기』를 한국 고대사 연구에 참고 이용하는 분위기는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저조하였다.⁵⁹⁾ 이는 식민사학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지속되면서 학계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서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가야사를

49) 한국고대사학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경문화사.
5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 검색 결과 제목에 ‘고구려’가 들어간 국내 학술논문(인문학) 1,843건 가운데 1,417건이 2004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다.
51) RISS 검색 결과 제목에 ‘고구려’가 들어간 국내 박사학위논문 93건(1973~2025) 가운데 2004년 이후 나온 논문이 66건이다.
52) 권오영 외, 2003, 『강좌 한국고대사』 4(고대국가의 대외관계),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노태돈 외, 2019,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53) 윤재운/한규철, 2006, 「신라의 대외관계와 무역」/「발해의 대외관계와 무역」, 『한국고대사입문』 3(신라와 발해), 신서원.
윤용구/김창석, 2007, 「삼한·삼국의 교역」/「남북국시기의 교역」,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54) 나행주, 2018, 「고대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62 참조.
55) 최근영 외 편, 1994, 『日本六國史 韓國關係記事』(原文/譯註),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56)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1~3, 일지사.
57) 김기섭 외, 2005, 『일본 고종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해안.
58)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1~3, 동북아역사재단.
59) 이영식, 2007, 「『일본서기』 활용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p.425.

개설한 글들에서부터이다.⁶⁰⁾ 1976~80년 김해 예안리 고분에서 인골이 출토되고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김해 수로왕릉 일대가 정비되면서 가야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일본서기』를 한국 고대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5~6세기 백제사와 가야사 연구에서 『일본서기』를 사료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⁶¹⁾ 앞서 보았듯이 학회 창립 계기가 1984년 4월 대구에 재직하고 있던 고대사 전공자들이 모여 『일본서기』를 윤독하면서부터였다. 3년에 걸친 『일본서기』 윤독을 통해 전공자 간의 학문적 교류와 공동 연구와 토론을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회가 설립된 것이다.⁶²⁾ 1980년대 후반에 『일본서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데에도 연구회의 윤독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2월 개최된 제11회 합동토론회(외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에서 중국 사서와 함께 일본 사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모두 5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3편이 중국 사서, 2편이 일본 사서(『일본서기』, 『속일본기』)에 관한 것이었다. 사료의 양이나 활용 빈도를 고려할 때 중국 사서의 비중이 더 크어도 불구하고 2편을 할당한 것은 일본 사서 활용이 당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종합토론에서 나온 “저희에 와서 『일본서기』가 비판적으로 우리 고대사의 복원을 위한 그런 자료로 쓰여 질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이영식 교수의 발언⁶³⁾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회 설립 초창기의 『일본서기』 윤독회와 1990년대의 기획 연구가 이어져 2000년 이후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학술회의가 여러 번 기획될 수 있었다. 1999년 2월(송실대) 총회에서 ‘해외지역이사’가 신설되고 일본 와세다대학 李成市 교수가 위촉되어 2020년까지 맡았다.⁶⁴⁾ 해외지역이사 신설은 당시 학회의 연구 방향이 동아시아를 향해 확장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앞서 보았듯이 1990년대 중후반은 PC와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디지털 자료가 활용되기 시작한 전환기였다. 인터넷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자료까지 검색하고 활용

60) 문경현, 1975, 「伽耶史의 新考察-大加耶問題를 中心으로」, 『大丘史學』 9.

정중환, 1978,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의 加羅關係記事研究」, 『釜山史學』 2.

천관우, 1978~1979, 「復元 加耶史(상~하)」, 『文學과 知性』 1977년 여름호~1978년 봄호.

61) 노중국, 1985,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檀魯體制를 중심으로」,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김태식, 1985, 「5세기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12, 서울대;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

62)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88, 「창립경과」, 『한국고대사연구』 1 참조.

63) 이기동 외, 1998, 「종합토론」, 『한국고대사연구』 14, p.273.

64) 2021년부터 현재는 京都府立大學 井上直樹 교수가 해외지역이사를 맡고 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도 고대사 연구의 방향이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고대사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제언

1987년 학회가 창립되고 1988년 7월에 『한국고대사연구』 1호가 지식산업사에서 출간되었다. 그 창간사에 다음과 같이 학회의 설립 목적이 밝혀져 있다.

B. 본 학회의 목적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이를 올바르게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대중화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학회는 고대사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오는 역사인식의 한계성을 극복하며 연구자 상호간의 긴밀한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공동토론을 활성화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연구성과들을 우리 사회와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하였다.⁶⁵⁾

위 발간사의 내용은 학회의 ‘발기 취지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학회의 설립 목적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있어 인용해 보았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학회의 목적이 “고대사의 체계화와 대중화”에 있다는 대목이다.

고대사의 체계화와 대중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학회 연구자들 내에서 고대사의 기본 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론이나 통설이 모아져야 그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또 환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고대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논의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회 설립 초창기부터 여러 번의 합동토론회⁶⁶⁾가 있었지만 결국 미완에 그치고 정리되지 못한 느낌이다.

제1~6회의 합동토론회가 고대사의 체계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었음은 공동주제의 구성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65)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88, 『발간사』, 『한국고대사연구』 1.

66) 1993년 2월 제6회 합동토론회(한국사의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 2007년 2월 제20회 합동토론회(한국 고대사의 시기 구분).

표 6. 제1~6회 합동토론회 공동주제

구분	공동주제	일시(장소)
제1회	한국고대국가형성에 관한 제문제	1988.2.6.~7(대구 파크호텔)
제2회	한국고대국가의 발달에 관한 제문제	1989.2.17.~18(충남대)
제3회	7세기 한국사의 제문제	1990.2.9.~10(계명대)
제4회	8~9세기의 신라와 발해	1991.1.30.~31(계명대)
제5회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1992.2.14.~15(계명대)
제6회	한국사의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	1993.2.17.~18(서울대)

이러한 5개년 계획은 한국 고대사의 체계화를 위한 학회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초창기 학회지를 발간해 준 지식산업사와의 약속이기도 한 개설서 편찬을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학회 20주년 기념 특집 논문에서도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개설서의 발간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기도 하였다.⁶⁷⁾

1~5회까지 진행된 합동토론회 공동주제는 당시 학회에서 생각하고 있던 고대사의 체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회는 1992년에 『한국고대사료집성』⁶⁸⁾을 지식산업사에서 발간하였다. 간행사에 의하면, 이 자료집의 목차(표 7)는 학회 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당시까지 추진한 학회의 시기 구분에 관한 발표 성과에 준거한 것이었다.

이 자료집은 한국 고대사의 기본 자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국내 자료와 『사기』, 『삼국지』 등의 중국 자료, 『일본서기』, 『속일본기』 등의 일본 자료뿐만 아니라 금석문, 고문서 등을 망라하여 각 장·절별로 관련 자료의 원문(원본)을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별로 주요 연구 성과인 참고문헌을 정리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각 자료에 관한 해제가 붙어 있다. 거의 개설서에 가까운 구성으로 이루어진 고대사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67) 노중국, 2007, 앞의 논문, p.274.

68)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1992, 『韓國古代史資料集』, 지식산업사.

표 7. 『한국고대사자료집』(1992) 목차

제1장 고대사회의 형성과 국가의 출현	
1. 고조선의 형성과 사회구조	5. 마한사회와 백제의 성립
2. 부여의 성립과 사회구조	6. 진한사회와 신라의 성립
3. 고구려의 성립	7. 변한사회와 가야제국
4. 옥저·동예·읍루	
제2장 삼국의 발전	
1. 정치적 발전	4. 사상과 문화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4) 가야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2. 통치조직	5. 대외관계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3. 경제와 사회구조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제3장 7세기의 정치·사회변동	
1.麗濟의 멸망과 부흥운동	2. 신라의 삼국통합과 대당전쟁
1)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3. 사회경제의 변화
2)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4. 사상계의 변화
제4장 통일신라와 발해	
1. 정치사의 전개	3. 경제와 사회구조
1) 통일신라 2) 발해	1) 통일신라 2) 발해
2. 통치체제의 정비	4. 사상과 문화
	1) 통일신라 2) 발해
제5장 후삼국의 성립과 사회변동	
1. 농민봉기와 호족의 성장	
2. 사상계의 변화	
3. 후삼국의 정립과 고려의 통일	

필자는 1993년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이 자료집을 많이 참고하며 공부하였다.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런 체제로 개설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학회 창립 30주년인 2017년에 시민강좌 원고를 모은 『우리 시대의 한국 고대사』⁶⁹⁾가 출간되어 대중화의 갈증은 조금이나마 풀린 셈이지만, 여전히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개설서는 간행되지 못했다.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고대사를 강의할 때마다 『한국 고고학 강의』⁷⁰⁾와 같은 개설서가 한 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개설서의 발간은 고대사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학회 창립 40주년(2027)을 맞이하여 개설서에 관한 학회의 논의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26.3.29.)

69) 한국고대사학회 편, 2017, 『우리 시대의 한국 고대사: 한국고대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시민강좌(1~2)』, 주류성.

70) 한국고고학회 편, 2007,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2010, 개정 신판.

2011~2025년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홍승우(경북대)

< 별 지 배 포 >

매우 특별한 우리의 소설, 『사국지(四國志)』 전 5권 완간!

신라의 통일은 ‘국가 건설(State building),
철저한 고증으로 되살린 6, 7세기 동북아 대서사



역사소설의 새로운 전범 탄생!

하응백 작가의 『사국지』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역사소설이다. 필자와 하 작가는 SNS를 통해 만난 ‘신식’ 친구이다. 2023년 여름에 필자가 『시간이 놓친 역사, 공간으로 읽는다』라는 교양서를 출간했는데, 하 작가는 역사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찬의 서평을 SNS에 올렸다. 이때부터 SNS를 통해 하 작가와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하 작가가 물으면 필자가 답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SNS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 작가는 고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때로는 사료와 논문을 찾아보아야 할 정도였다.

무언가 이상하여 왜 그러냐고 여쭙보니,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을 배경으로 역사소설을 쓰고 있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할 때 『삼국사기』를 필사하며 소설을 구상했고, 시대 배경을 알기 위해 수십 권의 학술서와 500여 편의 논문을 읽었다고 했다. 그때 적잖이 놀라면서도 참으로 반기웠다. 고대사 분야에서도 실제 역사적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한 역사소설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하 작가가 무언가를 물으면,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곤 했다.

『사국지』 초고를 통독하며 하 작가가 사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역사적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묘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20세기를 관통했던 ‘민족’이라는 화두 대신, 21세기를 새롭게 열어갈 화두를 찾기 위해서도 많이 고민했음을 느꼈다. 그런 점에서 『사국지』는 실제 역사와 작가의 상상력이 잘 어우러진 역사소설의 새로운 전범(典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많은 독자가 『사국지』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이 몸담은 국가와 정치세력의 생존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고대인의 모습을 접하고, 우리 고대사에 더욱 친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_여호규(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의 발문 중에서